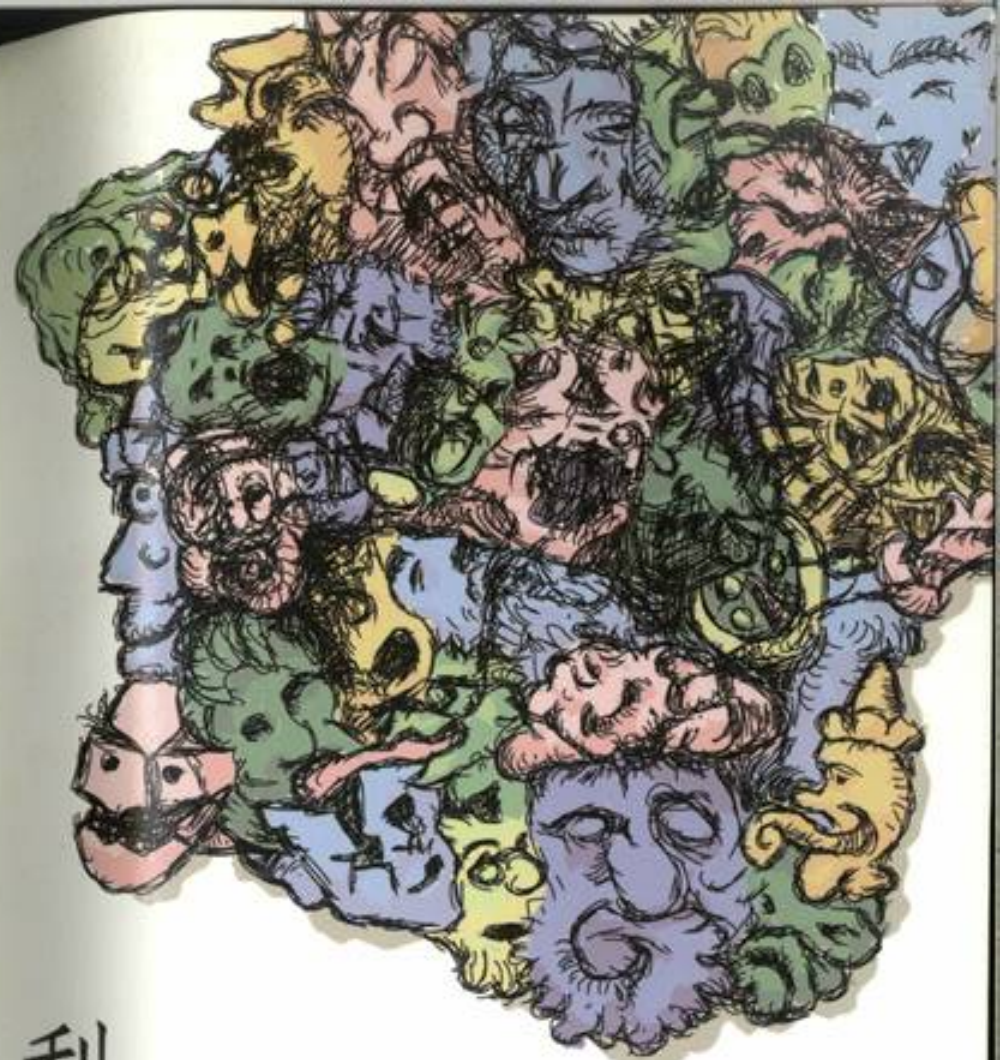


EWHA 86th
2013 SPRING

梨花 86



여는 글 1004

2012-2 이화의 학내 다이어리 1008

우리이화 총학생회 인터뷰 1014

강의실 말! 말! 말! 1028

[인터뷰] 유재카 1032

[포토에세이] "우리는 환자 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038

01

학내

소리없는 아우성

여성 대통령? 1048

자유, 평등 그 중심에서 1060

복지, 예산의 천덕꾸러기를 위한 번 1070

공정을 가르칩니다 1080

02

대선

그 모든 진파같은 거짓말

음주의 윤리학 1096

단두대에 대한 성찰 1104

누구를 위한 은밀자인가 1116

03

통제

피해망상 ver.2013

04

사회

Stereo Type

128 | 택시법, Why so serious?

138 | 보육, 길을 묻다

150 |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feat. 에너지 음료)

05

여성

가장 보통의 존재

162 | L-Roommate

170 | [매체비평] 페스티발

180 | 불리아오리

188 | 생태주의-어느 소식 중독자의 고백

196 | [기고] '이화'에 85점을 고함

206 | 편집실 기획안 밑

210 | 편집후기

여는 2

‘여는 글’을 써야만 하는 시기가 되면 저희는 그 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이번 『이화』를 시작하면 좋을까, 어떤 말을 써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화인들이 『이화』를 계속해서 읽어 줄까, 아꼈거나 항상 그랬듯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화』 86집을 작업하며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한 말은 ‘우리는 글을 같이 쓴다.’였습니다. 발행인이 ‘이화교지편집위원회’이고 편집위원 모두의 합의를 거쳐 글을 쓰기에 저희는 각각의 글에 필명 대신 ‘이화교지편집위원회’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때문에 『이화』에 실린 글은 단 한 명의 글이 아닌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전체의 글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저희는 ‘글을 같이 쓴다’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획자는 있다.’ 글을 쓰는 과정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만으로도 힘든데 회의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도 써와라, 저 내용도 써와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내 글이 더 이상 내 글이 아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내 글에 담겨있고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은 말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 기획자가 자기 글에 애정을 잃으면 그 글은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기획자 자신조차도 설득시킬 수 없는데 그 글이 세상 어느 누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작업 내내 저희는 스스로가 ‘기획자’임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상기시켰습니다. 글을 기획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고 싶은 말’이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글에 대한 내 애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희는 참 많이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화』 86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화』 86집 안에 담긴 스무 편의 글에 저희의 애정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들을 읽어주실 여러분들은 저희의 생각에 얼마나 동의를 해주실까요.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저희 생각을 담아낸 이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그 첫걸음으로 『이화』 86집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梨花

EWHA 86th 2013 Spring

학내

소리없는 아우성

008 | 2012-2 이화의 학내 다이어리

014 | 우리이화 총학생회 인터뷰

028 | 강의실 말!말!말!

032 | [만화] 유레캐

038 |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CHAPTER

2012-2

이화의 학내 다이어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20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 개강	4	5	6	7	8
9	10	11	12 ✕ 이화85집 발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	25	26	27 ✕	28	29

September

✕ 9월 3일 개강(새로운 사이버 캠퍼스가 주목받음)

- 무와 개강이다! 어서와! 바쁜 시점은 처음이지?

✕ 9월 12일 이화85집 발간

- 이화 85집이 우여곡절 끝에 발간되었다. 원래 첫 책을 시작일이 배부일이지만 날씨 때문에 수요일로 미뤄진 뒤 발간된 것. 그래도 발간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교내위는 감동의 도가나었다.

✕ 9월 24-27일 교육투쟁 공동행동

- 9월 24일부터 4일간 '아이위시'라는 이름으로 총학 주최와 교육투쟁 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이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명칭 아래 총학과 단대 학생회는 등록금 인하, 대항강의 문제 해결, 자치 공간 확보, 단과대 복지 사안 해결 등의 목표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홍보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 9월 25-27일 이화 속의 ★ 즐겨찾기 제2라운드

- 학기에 이어 몇몇 동아리가 학문관에서 박람회 열었다. 학생자치공간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소개한다는 취지였지만 아이, 크고 아름다운 부스는 소수에게만 돌아갔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아리만 부스 주나올뿐 그리고 그 명예는 대체 뭐냐! 나쁘다음!

✕ 이화의료원 파업

- 9월 한 달 간 이화의료원이 파업을 감행했다. 교내에서 벌어진 같은 재단 병원의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과정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 듯하니 38페이지를 참고하시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 학생 복지사안 협의회	11	12 ✱ 예산 자치체 심의회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교양 중간고사	25	26	27
28	29 ✱ 유레카 통합 행정 시스템 시작	30	31 ✱ 이화노트 개설			

October

✱ 10월 10일 학교-학생 복지사안 협의회

- 중운위의 12개 학생복지사안 협의를 위해 학교와 학생 대표 간에 협의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안에 학교는 '어렵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해주실 거만 물하게 해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 고 그냥 말해주시면 안 돼요? 화답고문 하지 마세요. 검토만 백만번째라니 학생이 봉인가요?

✱ 10월 12일 예산 자치체 심의회

✱ 10월 29일 유레카 통합 행정 시스템 시작

- 학교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유레카 통합 행정 시스템이 화려하게 그 시작을 알렸다. 서버 몇 개를 통합하고 자바(java)를 깔아와 돌리기도 바쁘게 놓으셨는데, 비루한 제 넷북은 학교의 큰 뜻을 따라 가지 못하는군요. 아이 자바를 부당소라워하시며 너무 느리시며 때론 켜지지도 않는군요. 우리들의 오열을 엿보길 원하는 분은 만화 '유레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31일 이화노트 개설

- 지난 가을학기 중반 학내 곳곳에 붙어있던 '이화노트' 홍보 포스터를 다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눈에 확 띄는 색깔로 학인 벗들만을 위한 강의평가 사이트가 생겼음을 고했었는데, 졸업할 앞둔 한 벗이 직접 만든 사이트라 한다. 독학으로 관련 분야를 파면서 만든 사이트라 하는데... 흥해라 이화노트!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동아리 연합회 선거(단일선본)	15	16	17
18	19	20	21	22 ✱ 총학정책공청회	23	24
25 ✱ 김선욱 총장 RC관련 인터뷰	26	27	28 ✱ 겨울계열학기 수강신청 총학 선거 및 단체 선거	29	30	

November

✱ 11월 14-15일 동아리 연합회 선거

✱ 11월 22일 총학정책공청회

✱ 11월 25일 김선욱 총장 RC관련 인터뷰 in 조선일보

- 우리 학교가 2015년을 목표로 새 기숙사를 지어 신입생 전원이 최소 한 학기는 학교에서 살도록 하는 RC를 도입한다고 한다. 최근 연세대가 신입생 전원을 송도 캠퍼스에 기숙(이라 쓰고 유배라고 읽는다)시켜서 화제였는데 그 취지도 RC라고, 이 Residential college는 외국 명문 기숙 대학을 모델로 하는 거라 한다. 대학 نوم신 분들 사이에서 RC가 유행하니본대 이게 대학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글썄... 하여튼 한국에 호그와트가 세워진다고 하니 일개 머글로서는 관심이 간다.

✱ 11월 27일 비상전학대회: 예자위 이월금 40:30:30으로 나누기로

- 예자위는 동아리나 자치단위가 아닌 학생들도 학생회비를 이용해 행사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홍보 부족과 학생들의 참여를 저조로 시용금보다 이월금이 많은 상황. 원래 자치단 위에게만 배분되던 학생회비를 예자위와 나눠 쓰게 되면서 자치단위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위원회의 이월금이 훨씬 많아지면서 자치단위를 비롯한 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결국 비상전학대회가 소집되었고 예자위의 이월금은 총학 40%, 자치단위 30%, 예자위 30%로 나누어 적립하기로 결정되었다. 자치단위가 연재를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교편의 역시 고대하고 있다. 형내세요!

✱ 11월 28-29일 총학 선거 및 단체 선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 학내 모든 건물 금연 실시
9	10	11	12	13	14	15
					기말고사	
16	17	18	19 ✕ 대선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	20	21	22
기말고사						
23 30	24 겨울학기학기 시작	25 ✕ 크리스마스	26	27	28	29

December

✕ 12월8일 학내 모든 건물 금연 실시

- 2012년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하여 학내 모든 건물에서 금연이 의무화되었다. 심지어 담뭍담배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고 원래 개방된 실내에서의 흡연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학문관에서 빔을 지새우는 애연가들은 새벽에도 밖에 나가 달달 밀며 담배를 피워야 하는 현실. 혹시 흡연 구역을 설치해줄 수는 없죠. 암요. 나가서 밀게요. 흠.

✕ 12월19일 대선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

- 이례적인 투표율과 손에 땀을 쥐게하는 개표 방송으로 기억될 이번 대선. 교편위의 80집 아심작 '대선 팀'에서 자세히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짚어본다. 완전 재미있어요. 꼭 보세요. 두 번 보세요.

✕ 12월25일 크리스마스

- 12월 초가 되면 우리 학교는 트리와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빛난다.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름답게 빛난다. 혹시, 그 전기 이껴서 저희 난방 좀, 가끔 장갑 끼고 회 의하는데. 추운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1차 등심위	15	16 ✕ 2차 등심위	17	18	19
20	21 ✕ 3차 등심위	22 ✕ 4차 등심위	23 ✕ 5차 등심위	24	25	26
27	28	29	30	31		

January

✕ 1월 14일 1차 등심위

✕ 1월 16일 2차 등심위

✕ 1월 21일 3차 등심위

✕ 1월 22일 4차 등심위

✕ 1월 23일 5차 등심위

- 학교가 등록금을 인하했다 등심위가 끝나고 학교가 15% 정도 등록금을 인하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인상이 아니고 동결이 아니고 인하하니 반가운 소리이다. 그런데 15%라는 비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또 학부 등록금은 인하되었지만 일반 대학원은 동결, 전문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었다. 왜죠? 전문 대학원은 원래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서 3%만 올려도 꽤 큰 금액일텐데. 혹시 학부에서 못 거둔 등록금을 대학원에서 충원하려 하시는 건가요?
- 등심위가 이회여에 도입되고 처음으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최종 등심위까지 모두 참여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학문관에 붙어 있던 동연 회장 자보를 보면 등심위 과정 중 위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나보다. 대략적 상황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총학생회 인터뷰를 참고하시라.
-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숨 가쁘게 달린 것 같은데 병학 내내 학교에 살았던 기화자미저도 등심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무슨 상황인지 어찌 진일인지 잘 모르겠다. 등록금과 등심위는 여전히 일 수 없는 미지의 무엇인 듯 하다.

우리이화 총학생회 Interview

이화교지면집위원회



이화여대 2013

Part. 1

등록금

Q 이번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자료공개 협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우리이화 처음에 공개성을 위해 노트북, 녹음기, 서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녹음기는 불허하겠다고 했고 서기록의 경우 누락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상세한 회의록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회의록 작성으로 합의를 했다. 회의록 작성은 학생 측과 학교 측이 번갈아가면서 했다. 작성된 내용은 공개성이 가장 보장되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①

그런데 학생들에게 합의과정을 공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회의록에 작성된 내용에 한해서만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논의 과정에서 1차 등심위 내용이 학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유출되자 왜 유출시켰냐며 학교로부터 압력이 오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 학생 등심위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등록금 책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예산^②, 가결산^③ 자료가

①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현황-일반현황-등록금심의위원회에 2012, 2013년도 등심위 회의록이 게재되어있다.
(http://www.ewha.ac.kr/ica/rtu/index.jsp?doc=1_6_1_1_4)

② 임시적으로 계획하는 단기 예산의 정정 예산을 뜻한다.

③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의 도중에 가결산으로 행하는 결산을 뜻한다.

필요한데 학교 측은 그런 자료는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차 등심위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얼마든지 예산처에 가서 자료를 보라는 답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예산처에 갔더니 예산처는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에게는 예산 감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학교는 3차 등심위가 열리기 3시간 전쯤 가공된 상태에서 보여주겠다고 하여 결국 그 날 자료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학교가 정말 자료를 제공하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아침에 자료 공개를 골자로 피켓 시위를 했다. 그런데 3차 때 받은 자료도 너무 개괄적이었고 결국 4차에 가서야 그나마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가 구분되어있는 세분화된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이화의 코멘트 등심위 참여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들어가기 전에 지보라도 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학이니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일면 동의하지만 중운위 의견이 꼭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뜻이 중운위 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한 뉴앙스의 차이는 회의록이나 서기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등록금 책정 협의회 시절 학교 측의 서기록에 학교 측에 불리한 여러 정보들이 누락되었던 것과 같이⁹ 정보가 왜곡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록이나 녹취와 같이 회의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많이 마련하는 게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측이 회의록을 번갈아 쓰는 데 합의를 한 것은 학교의 제안에 총학생회가 수동적인 태도로 순응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학교가 과연 학생들과 '합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학교는 학생 측이 자료 열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할 즈음인 4차 등심위 직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학생 측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 학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부 유출 건에 대해서도 학생 측을 강력히 압박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협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등심위가 성사된 것 자체는 좋은 일이나 위 같은 문제점이 다음 등심위 때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부 등심위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이화 4차 등심위 때 학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며 학생 등심위 위원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학부 등록금은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만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부생들 중에서 자대 대학원 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학부에서 인하고 대학원에서 인상하면 결국 대학원생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4차 등심위부터 이미 대학원 대표자님이 불참하시는 상태라 대학원의 입장을 주장할 사람이 사실상 부재했다. 그래서 만약 학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등심위에 참석한 학생 등심위 위원들에게 대학원 등록금 인상 책임이 전적으로 지워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합의를 하든 안하든 1.5%의 등록금 인하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1.5%의 인하안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도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 예정에 없던 5차 등심위를 주장했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은 5차 등심위 직전 불참을 알리셨다. 그 분이 학문관 1층 게시판에 붙인 자보에는 우리가 비상중운위 논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4차 등심위가 끝나고 5차 등심위까지 12시간 남짓한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이전의 회의록 내용 유출 건도 있었기 때문에 과 단위까지는 논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로 중운위 내부에서 합의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은 중운위에서 선출된 분이면서 개인 단위의 의견이 아닌 중운위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등심위에 들어가기로 이

⁹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세워지기 이전 등록금 책정 협의회에서 등학생회는 모임이 따로 있었다. 2008년 1월에 열린 등학생회에서 ECC의 상업시설에 대한 질문에 학교 측이 "이 공간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교직원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싸게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총학생회 측의 서기록에만 기재되어있고 학교 측의 서기록에는 기재되지 않음. 이하 76호 [등록금 알았음] 이화교지편찬위원회 2008.3

미 합의했다. 그런데 5차 등심위가 열리기 20분 전 그분이 중운위 결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등심위에 불참했다. 그래서 결국 이후에 합의를 해야 하는 학생 등심위 위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본다.

이화의 코멘트 단순히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제까지의 우리 학교 총학생회나 타고 총학생회에서 주장하던 것은 바로 '의결기구'로서의 등심위였다. 등심위는 단순히 심의기구를 넘어서서 등록금 의결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심위에서 1.5% 인하안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약' 12.5%의 인하안이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없던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12.5%의 인하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면 최소한 등심위가 열리기 전에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여론을 수집하여 참고정도는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 사퇴나 대학원 대표 불참에 대해 느꼈을 총학생회의 심리적 압박감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압박감의 책임을 불참한 등심위 위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총학생회가 최대한 다른 학생 등심위 위원들과 서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분들이 왜 불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부분에서 총학의 주체적인 판단이 마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Part. 2

등록금 인하운동

Q 이번 등심위에서 최종적으로 등록금 1.5% 인하 결정이 났는데 그렇다면 당초 주장했던 12.5%인하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이화 등심위에 참석한 이유는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지, 우리가 어떤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이를 정확히 알고 학생들에게 알려야 등록금 인하 요구에 타당성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등심위에서 총학생회는 구체적인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와 학생들이 거래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우리가 20% 인하를 제시하고 학교가 동결이면 그 중간을 택해서 10%만 인하하는 건 거래적 관계인데, 등심위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또한 12.5% 인하안은 모든 사립대학들이 예산 행위를 줄인다면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 비율에 만족하니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등심위 참석의 목적은 등록금을 12.5% 인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예산 행위를 찾는 데에 있었다.

이화의 코멘트 감사원 결과든 무엇이든 우리이화가 선본 공약에 12.5% 인하를 게재했으니 '완벽히' 이행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그

공약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생 의견을 대변하는 것 이외에도 주장한 공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12.5%의 인하안을 염두에 두고 등심위에 참여해야 했다.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동결이나 인하 수치를 제시하는데 이에 맞서서 구체적인 인하안을 제시하지를 않는다면 합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등심위에서 학교와 학생은 '거래적인 관계' 즉 협상의 관계가 맞다고 생각된다. 결국 등심위는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Q 학교의 인하안을 수용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활동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우리이화 [] 공약이라는 게 사실상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실행할 순 없다. 우리도 1.5% 인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던 이유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1.5%의 등록금 인하 합의와 총학생회의 등록금 인하 활동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5월에 2012년 결산이 나오는데 이 때 예결산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구성해서 학교가 전년도에 등록금을 얼마나 뺐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리고 등록금 뺐기기를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12.5%의 인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와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 우리학교에 일어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해당 비율만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양하려고 한다.

그리고 등심위 진행하면서 예결산안을 보는데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국고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등록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국고 보조금이 늘거나 국가장학금이 확충된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화여대 내에서 서명 운동이라던가 작은 행동들도 할 수 있

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아직 일정이 없는 상태다.

이화의 코멘트 [] 1.5% 인하안에 협상을 했다는 것은 책정된 인하안에 학생들이 일면 동의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후 등록금 인하 운동을 할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실상 예결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 등록금은 책정되었고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더 길어졌다. 인하안에 합의를 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구상하는 생각의 상은 많으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부재한 상황인 것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Part. 3

소통

Q 제1기조로 내세운 소통에 대해 향후 방향은 어떠한가?

우리이화 []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화이언 열린광장을 통해서 총학생회가 방학 중에 했던 사업 등 여러 가지를 보고하고 있다. 이후 2월 중순에 개설될 우리이화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쉽고 간편하게 총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총학생회실 앞부분을 청소하고 차 등을 비치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휴게공간처럼 변환을 할 생각이다. 또한 총학생회 티타임 호프타임도 계획 중인데 이는 신청만 하루 전에 미리 한다면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과 차나 술을 마시면서 학교의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자리다. 그리고 우리이화 소통국을 통해 총학생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매 주마다 보고자보를 게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론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 패이퍼 등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란을 따로 만드는 등 모든 소통 체계를 열어놓을 생각이다.

이화의 코멘트 선본 유세 당시 홍보 리플렛에 천막농성 이미지까지 붙일 정도로 저번 총학의 소통부재를 정면 비판하였으나 별다른 변화 없이 총선 개방 등 기존 총학들의 소통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 또한 총학 트위터·페이스북 주소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총학생회 홈페이지조차 개설이 늦는 바람에 홍보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듯한 점도 아쉽다.

유세기간 동안은 선본이 관례적으로 매주 자보를 붙여 왔는데 우리이화는 선본 때 그렇지 않아 비판받는 자보까지 붙었다. 그런데 그 때와는 달리 자보를 매 주간 붙여준다는 건 다행이다. 부디 차수의 누락 없이 잘 되길 바란다.

Q 단체 학생회나 학교 측과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우리이화 단체 대표들이 과대표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중운위에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때문에 1월부터 단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과대표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려고 한다. 또한 총학생회와 연락을 어려워하시는 과대표들도 있어서 과의 의견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간부 수련회 때 연락

처를 알려드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교 측과는 저번 등심위 때 협의회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협상했다. 그 결과 적어도 한 학기에 두 번 이상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첫 협의회는 이번 3월 중에 열 생각이다.

이화의 코멘트 총학이 과, 단대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이유가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총학 사업에만 한정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와 더 가까워보인다.

44대 총학생회였던 ACTing이화에서 단운위 참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던 이유 중 하나는 총학생회가 단운위에 개입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의견 수렴 차원에서 참여한다고 해도 단대, 과 수준으로 자율적인 자치 논의가 오가는 단운위의 입장에서는 총학생회 측이 총학 사업을 구실로 월권행위를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굳이 다른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단운위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열린 소통의 방법일지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art. 4

총학 사업

Q 2013년 우리이화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가?

우리이화 일단은 생활비 인하가 목표이다. 학교 앞에 있는 상권들의 물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밥다운 밥을 먹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싶다.

방학 중에는 온카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독점 계약 형식인데,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안동점담 집이 네 개가 있을 때 그 중 한 집과만 계약을 해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10~20% 정도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그 가게만 홍보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아 홍보가 되지 않는 상권들은 자율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원래 학교 안에 있는 외부업체한테도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에게 할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렇지만 학교 안에 있는 업체들도 할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외부업체 할인 모니터링단을 꾸릴 생각이다. 학식은 문제가 많다면 직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외의 외부업체들에게는 시정할 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단이 보았을 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업체들을 다시 뽑아서 시험기간 중 총학생회 황금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학생회 황금마차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외부업체들이 시정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화의 코멘트 독점 계약을 했을 경우 안 그래도 프랜차이즈 점들만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위기를 겪는 학교 주변 상권들이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학교 내 영리업체들의 부담 이익 취득은 문제이다. 하지만 홍보를 미끼로 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무조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학생들보다 더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교 외부 자영업자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은 마치 이화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외부인들을 착취하지는 논리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물가상승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하려 하는 것은 당장 이화인들에게 단기적인 이득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부 영

세상인들의 상권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를 이용하는 이화인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총학생회 황금마차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학교 내부에 있는 업체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시설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다. 따라서 이들이 총학생회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시정요구를 다 받아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불매 운동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왜 꼭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불매운동은 상점들이 정당한 수준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이화인과 외부인 사이의 편 가르기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재고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Q 우리이화가 구상하는 대동제의 그림과 구성, 그리고 방향성은 어떠한가?

우리이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 굳이 방향을 정하자면 모든 대동제의 취지가 그렇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동제가 정말 의미로만 남는 것보다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축제에 와서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했던 것 중 하나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불러볼까 하는 것이다. 지금 컨택 중인데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면 자연스럽게 디제이라던가 가수들도 와서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 외에도 이때까지 이화에서 할 수 없었던 행사를 시도해보거나 대동제가 재미없는 원인을 찾아볼 생각이다. '새끼꼬기' 등의 행사는 옛날 전통을 이어간다는 취지가 있긴 하나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려 한다.

이화의 코멘트 대동제 기획은 총학의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이제 술술 구
채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뇌 과학에서도 단순
히 재미있다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처럼, 의미를
있고 흥미 위주로만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전통 행사
의 경우 그런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 너무 '과감'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Q 정의로운 이화인, 개념 콘서트 등 진행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우리이화 이미지 개선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
다. 단지 EXC 소파나 포관 의자에서 김밥을 혼자 먹고 있
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음 아랐다. 이대생들의 차가운 이미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바로 학생들이 혼자 밥을 먹는 등의 행동과 얽혀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이화인들은 사실 사회 문제, 불이익 등
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예컨대 이대 안에서
이화나비 콘서트를 열었을 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고 다들 눈물을 흘
리고 갔다. 굳이 인위적으로 부각시켜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보단 우리학
교의 진짜 이미지가 이런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
야기를 억지로 주입시키려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대학생이면 웅담 해야 한
다며 그 역할을 강요할 생각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화여대에
서도 같이 협동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한 학생
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정의로운 이화인과 개념 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생의 연대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
지 않도록 작은 모금활동이나 문제를 알리는 배지 소지하기 등 학생들이 쉽
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서 연대하려 한다. 학생들이 여러 사회 문제

들이 나와 민 이야기가 아님을 알고 이런 문제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보같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이화인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이화의 코멘트 밥을 혼자 먹기 때문에 이화인들이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다니 오히려 밥을 꼭 같이 먹어야 따뜻하다는 일반적인 이미
지에 갇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총학의 사업이 단순히 '정의로운 이화인'이
라는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아예 전제부터 이화인들은 정
의롭다고 깔고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의롭고
바람직하다'라는 총학생회에서 그리는 이화인의 상이 사실상은 외부의 고정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마치 주류사회로 편입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
문이다. 과연 총학생회가 바라보는 이화인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
보았으면 좋겠다.

또, 작은 실행도 좋지만 자보 등 기존에 사용된 소통 방법이나 어렵게 결정된 커
다란 움직임이 학생들에게 강요로 다가올 수 있으니 지양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또
하나의 폭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동안 쏟
은 학생들의 노력이 자칫 폄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의실

잘! 잘! 잘!”

하루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의 주 공간 강의실. 그 곳에서 나온 성차별적이며 성폭력적인 교수님들의 발언을 속 시원히 내뱉어보자. '내가 예민한 걸까'라고 고민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당신! 생활 속의 차별과 불편함을 잡아내는 당신의 그 감수성을 이화지가 지지합니다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여러분, 가부장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2012년 1학기 개설 전공필수 과목 7 교수님

개강 직후 아직 별달리 배운 것도 없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한 마디. “여러분, 가부장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듣자마자 혀했지만 그래도 왜 가부장제가 나쁘지 않은지 그 이유라도 말씀해주시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 나올 말을 기다렸는데 교수님은 그저 다음 진도로 넘어가실 뿐이고……. 아니, 교수님! ‘어허! 여자가 감히!’라는 사고방식의 근원인 가부장제가 나쁜 게 아니란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라도 설명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양성을 배우는 챕터에서 동성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하시나요. “여러분 남동생이 홍식천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애들 콧속 지적하시면서 ‘그래요?’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분위기에 눌려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가운데 교수님은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이런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해요.”라고 마무리하시길 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난 딱히 이런 사람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이 바뀐다니 내키지 않아도 따라야지, 크흠.’이라는 뜻을 못 알아들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리라. 다시는 교수님 수업 듣지 않으리 다짐해도 저는 수강신청 힘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영 과목들 또 짱클해야 할 뿐이고…….

“화장하는 남자들……. 음, 좀 게이스럽긴 한데.”

2012년 2학기 개설 기초교양 과목 1 교수님

여러 가지 기사문을 번역하는 과제가 있는 수업이라 매 시간 교수님께서 다음 과제로 나갈 기사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곤 했다. 마침 이번 과

제는 '화장하는 남자들'에 관한 기사였다. 한국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교수님이 'The Korean Men Makeup Fad'라는 제목을 읽으시면서 '게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특별히 동성애 비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수업 중 자연스럽게 덧붙인 말이라는 건 뉘앙스에서 알 수 있었지만....., 왜 '화장하는 남자'는 게이스러운 것이며 대체 게이스러운 것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게이 같다'나 '레즈 같다'가 마치 상용구처럼 사용되는 사회라지만 굳이 우리까지 그 고정관념 안에 갇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남친 꼭 사귀어봐요~"

2011년 2학기 개설 전공기초 과목 c 교수님

한 학기 내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하나같이 주옥같았지만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친 꼭 사귀어봐요~"라는 교수님의 조언 아닌 조언. 한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 수업 시간마다 열 번 씩은 말씀하셨던 것 자체 불편함에 한 몫 한 것 같습니다. 애인을 사귀는 것은 저의 자유요, 사귀지 않는 것도 저의 자유인 것인데 왜 자주 연애 해보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애하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연애하는 자의 오만 아닌가요! 그리고 왜! 도대체 왜 '남친'인 건가요! 그냥 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었던 건가요, 이화 교정 안에 OC가 이로케 이로케 많은데!

"남자친구가 다 해준 거 아니야?"

2012년 1학기 개설 전공선택 과목 c 교수님

템플 비중이 유난히 큰 수업이라 지금까지 발표한 조들이 모두 하나같이

잘 했는데 유달리 동영상 편집을 잘 한 조가 있었다. 세상에, 뭐 저렇게 잘 해....., 라며 발표가 끝난 후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 조에게 물어보시더라. "동영상 편집 누가 했어?"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선배한테 정말 내가 했냐며 재차 물어보시던 교수님은 급기야 "남자친구가 해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고....., 반쯤 농담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결국 반쯤은 진담이었다는 말이나 진배없는데, 여자는 동영상 편집 잘하면 안 되나요? 잘 하면 이상한 건가요? 여자는 기계류를 잘 못 다룰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불편했지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여대생' 이미지에 '남자친구에게 의존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

사족

여성주의는 이화학당의 창립 이념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현재 이화가 주요하게 여기는 기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화에서는 매 학기 십 수 개의 여성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굳이 여성학 수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여성학적 이슈를 제기하시곤 한다. 더불어 최근 교수 임용 비율은 대략 남성 51대 여성 49로, 여성 교수 임용 비율 10%를 목표로 하는 전국 여러 대학교를 생각한다면 가장 '성평등한' 환경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왜 이리 '불편함'이 많은 것인지.

교수님! 여러 대학 가운데 굳이 이화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계속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대학의 창립 이념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설부른 판단일까요? 여성학 수업은 학생들에게만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 들어야 할 수업 1순위'인 것이 아니라 임용 중인 교수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함께 공부해요, 여성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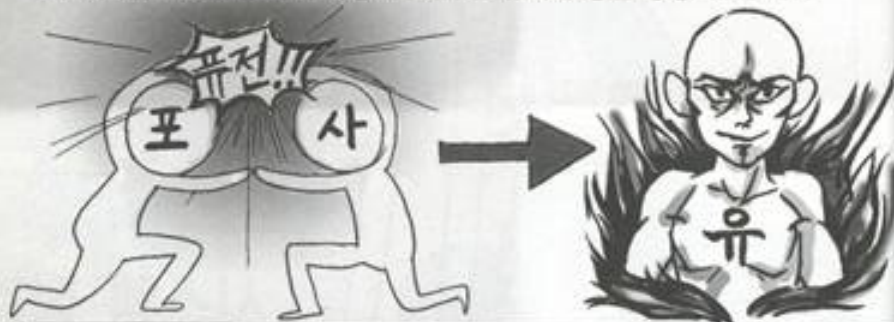
유레카!



만화 - 반쯤은이화인



2012학년도 2학기, 학내 가장 큰 이슈는 유레카 통합 행정이었습니다.



유레카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대
행정에
놓아주



리
스
펙
트

간편한 인터페이스에,
수강 포트폴리오랑
상담 시스템까지!

너희들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 주제!



하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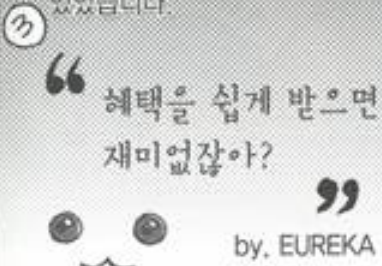
그 중 가장 심한 문제는
단연 잦은 서버 다운이었습니다.



필수구동 프로그램인 자바(Java)도
제대로 깔리지 않았고,



매뉴얼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바뀐 사이버캠퍼스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ex) 자료가 올라와도 정작 메인엔 뜨지 않음

그러다보니 이화인들의 불만도 속출했습니다.

제목 : 개념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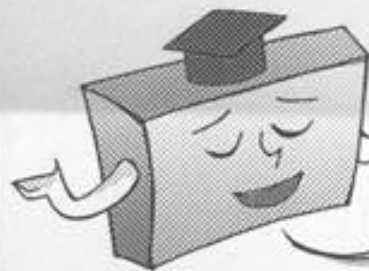
- ① 유레카 진짜 불편하다..... 주거랑.....
- ① 나의 사생활 돌려줘.....
- ① 근데 너희들 수강신청은 제대로 하고 이러는거냐
- ① 이 유레기 같은 놈들아!!!!!!!!!!!!
- ② 으아유.....전공 다형기유.....
- ② ~~~ 불타임 됐다 유레기 까자 ~~~
- ② 설책이 시즌 3으로 끝이라니 의사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물론, 유레카 포털 개편과 같은 '학교 선진화'의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나는 세계 제일의
대학교가 될 거야!
이티서티브 이화!!

하지만 그 일환인 유레카 통합행정을 굳이 학기중에 시행하고,
고집스럽게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행했는데
어떻게
되들리죠?



누구의 기준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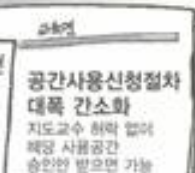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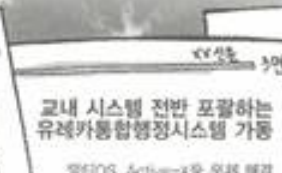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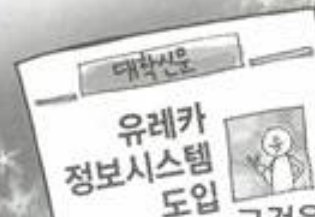


창편한 인터페이스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홍보해도,



그것을 과연 '선진화'라 할 수 있습니까?

수혜자와 제공자가 분리된 채 선정만을 베푸는 것이 선진화는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학교 선진화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화의료원지부위원회

2012년 9월 5일 임금 8.7% 인상과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 사학연금 지급과 인력충원 및 산별협약체결 등을 요구하여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파업이라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지난 2008년 동대문 병원이 없어지고 이대 목동 병원으로 통합되면서 동대문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의 20%, 목동 병원 노동자들은 6%가 삭감되었다. 상당한 불이익이었지만 병원 측은 경영이 정상화되는 2011년까지 삭감된 임금을 원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대 목동 병원은 ‘여성을 위한 병원’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원내에 보육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게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재단이 노동자들에게 꼭 보장해 주어야만 하는 사학연금도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 여건을 개선시킬 것을 병원에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부로 일관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택했다.

① 산별협약이란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된 협약이다. 산별교섭이란 금융·보건 등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노조를 만들고 협상을 진행하여 그 협상에서 결정된 근로조건을 업계 전체에 적용시키는 교섭을 말한다.



* 이 포토에세이는 보건의료노조의 뉴스와 사진 그리고 임미경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님과 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9월 5일 파업 시작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노동자들의 산별 교섭 요구에 병원 측이 계속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감행하였다. 노동자들은 병원이 최선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 서로 경쟁하는 데 급급해 값비싼 의료기기를 사고 실적을 올리는 일에 과도한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정작 최소한의 복지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병원 측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9월 6일 이화여대 방문 및 총학생회와의 연대

파업 2일차에 노동자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김선욱 총장에게 파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총학생회인 ACTing이화가 연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자들은 그 후 자리를 옮겨 재단 건물 앞에서 병원 재단에 대한 항의 농성을 벌였다.

9월 10일

이화의료원 측이 노조파괴 전문가로 유명한 노무사를 고용한 사실 확인

"노조파괴범"이라 불리며 산별 교섭을 와해시키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한 창조건설당의 심종두 노무사가 이화의료원 파업에 개입했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 노무사는 의료원 내에서 수간호사와 같은 중간관리자를 통해 조합원들의 파업 행위를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행동에 노조는 '심 노무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했다.



9월 14일

국회 견학을 신청했으나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파업이 장기화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화의료원 파업 사태에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뜻을 밝혔다. 이 중 한 명인 진보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의 초청을 받아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은 파업 운동의 일환으로 국회에 방문하여 본회의장 관람, 한안 간담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방문을 불허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국회사무처는 '불순행동이 일어날 것'이란 첩보가 있었고 돌발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없어 방문을 불허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노조를 위험한 단체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을 불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국회사무처의 입장에 노동자들 및 국회의원들은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9월 25일

이화여대 본관 앞 무기한 농성 돌입

병원 측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은 학교 본관 앞에서 밤을 새워 노숙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본관 농성 기간 동안 노조는 총학생회와 노조가 함께 하는 노동자-학생 결의대회와 교내 선전전 및 플래카드 만들기, 이화여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드리는 편지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내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10월 2일
협상안 타결

28일 간의 투쟁 끝에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노사는 임금 총액 대비 3.7% 인상에 합의하였으며 사측은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보육수당 월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병원 측이 노조에게 건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고소·고발 건은 취하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들이 우리 학교에 온 이유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학교에 찾아와 파업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단과의 연관성이다. 이화의료원과 우리 학교는 '이화학당'이라는 같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노조는 병원 내 노동자들의 좋지 않은 여건과 파업의 심각성을 재단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교에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화의료원 파업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같은 재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학교 간호학과 출신의 대다수가 이대 목동병원에 일자리를 얻는다고 한다. 동종 업계 종사자들이 받는 수준의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대 병원에 들어간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학교는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 조건에 방치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이화의료원에 많이 취업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실리적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파업을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단순한 동조를 넘어서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이화학당이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의 복지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화'라는 이름 아래 이런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같은 재단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여러 행사나 모금 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이화학당이 정작 자기 재단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냉랭하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참으로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

작년 10월 2일 결국 노동자 측과 병원 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이화의료원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노조를 지켜낸 첫 사업장'이라며 의의를 두었지만 사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 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

▲ **학내** _ "우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이 여전히 이화의료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한계가 바로 '산별교섭'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별교섭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동일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8년 돌연 불법이 된 교섭 형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별교섭을 병원 측이 완강한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산별교섭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두려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요구안에서 제시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는 것 역시도 문제이다. 근무시간 외 수당 지급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은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거의 없다. 보육시설의 경우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화의료원의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이화의료원 파업인 만큼 노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묵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화교지 수습모집

- ☞ 원서 배부 3월 11일(월) 부터 마감 전까지
- ☞ 원서 마감 3월 18일(월)
- ☞ 간단한 면접 3월 19일(개인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입생 환영회 3월 26일(화)

■ 원서배부 및 제출 장소는 학문관 216호!!

문의 : 010-8181-2742 / 02-3277-7692

자격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부생

이화교지편집위원회

梨花

EWHA 86th 2013 Spring

대선

그 모든 진짜같던 거짓말

- 048 | 여성 대통령?
- 060 | 자유, 평등 그 중점에서
- 070 | 복지, 예산의 천덕꾸러기를 위한 변
- 080 | 공정을 가르칩니다

CHAPTER

여성 대통령?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대물』은 누구인가

2010년 10월 26일 <대물>이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영되었다. 방송국 아나운서인 서혜림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항의하다 방송국에서 해고되고 그 후 정계에 입문해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다.⁹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서혜림의 인생과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당시 전 대통령이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평이 많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보다는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서 더 많이 회자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수식어 하에서 서혜림과 비견되는 인물로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박근혜의 원이 거론되었다.

『우리』 대통령님을 소개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 당일 당선이 확실해질 때부터 방송 3사는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보도했고 그 다음날 뉴스와 신문 역시 같은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대선 다음날 조선일보는 '박근혜, 첫 여성대통령·첫 父女대통령'이라는 기사로 1면을 장식했으며 경향신문도 '박근혜,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라며 1면에 대선 결과를 보도했다. 보수·전보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여성대통령'이라는 말은 박근혜 당선자를 위한 고유명사인양 끊임없이 사용되었다.

사실 '여성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박근혜 당선자와 관련 없이 이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 출마가 확실해지고 선거유세가 시

⁹ SBS <대물> 공식 페이지 등장인물 서혜림 설정 중 인용

작되자 '여성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박근혜 당선자만을 칭하는 말로서 회자되었다. 박근혜 캠프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새누리당 로고와 함께 전국에 뿌리며 '박근혜 여성대통령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근혜 당선자 자신도 인터뷰에서 직접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가 해신이고,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어필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박근혜 당선자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인 의견을 표했다. 여성대통령 탄생 자체가 해신이라는 박근혜 당선자의 말처럼 이제 여성대통령이 한 번 씬 나올 때도 되었다며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같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선 더 나은 일 아니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흔히 정치와 '여성'이 연결되었을 때 주로 부각되는 깨끗함, 도덕적 우월성 역시 박근혜 당선자의 지지율을 높여주었다.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성'이라 규정하는 포용력, 감성 능력, 소통 능력 등을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 당선자의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그 기능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혹독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박 후보는 출산과 보육 교육,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박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듯,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여성성'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박광온 대변인도 "서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재래시장을 몇 번 방문한다고 해서 서민층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야권 후보 측이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육아를 논할 수 있느냐"며 박근혜 당선인을 비난하면서 이에 새누리당 측이 다시 맞서는 등의 설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야권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출산과 보육, 장바구니 물가 등 '사회에서 흔히 여성이 담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고

'서민 엄마'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근혜가 여성대통령이 아니라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은 여성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여성다운'의 조건을 만들고 이를 모든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생물학적 여성이기에 지녀야 할 정형화된 여성성을 요구하고 결혼, 출산, 육아, 내조 등 '여성다운' 생애주기를 강요하는 기존의 가부장제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것이다. '아이를 갖지 못했기에' 육아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식의 비난은 더더욱 문제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논리를 대입했을 때 공격받지 않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누가 세상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대선이 임박했을 무렵 진보진영에서 박근혜 당선자를 풍자하려는 목적으로 재제한 '박근혜 출산 그림'도 역시 그 정도를 지나쳤다. 조롱과 비하는 누가 뭐래도 공고한 특권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풍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완전히 폭력이 된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특권층에 가까운 사람이며 그를 '약자'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생물학적 여성임은 분명하고 '사회적 비(非)특권층'에 위치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분명 특권층을 점한다 할 지라도 박근혜가 바특권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운데 야권은 비판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은 무시한 채 굳이 '여성'과 관련된 요소만을 꼬집어 박근혜 당선자를 조롱했다. 이는 애초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을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여성대통령론'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 야권에 대한 실망이 곧장 새누리당 및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저 정도 수준의 비난을 일삼는' 야권을 차마 지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되레 도를 지나친 지열한 비판을 받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됨과 동시에 진보진영에 비난이 쏟아지기까지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대통령’이 대관절 무엇이간대』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대통령론’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야권처럼 옳지 않은 근거로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근혜 당선자를 비판할 수 있는 올바른 근거는 무엇일까. 여께서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여성대통령을 주장하는 것에 그토록 분노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여성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볼아야 한다.

‘여성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한 것의 범주는 굉장히 넓다. 생물학적 여성이 가진 ‘여성성’을 기대하며 박근혜 당선자가 기존 남성들의 정치와는 다른 혁신을 보여주기만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사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여성들이 살기에 조금은 나은 세상,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바로 이런 것을 원한 것이다.



©cafedocba.com

성평등 순위가 135개국 중 108위에 머무는 만큼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② 똑같이 결혼을 하는데도 남성과 달리 여성은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고 임신을 하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뒀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에게 말 한 마디 하기조차 힘든 처지에 있다. 분명 사회적으로 ‘성차별’은 나쁘다는 관념이 퍼져 있는데도 차별은 차별로 인지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되곤 한다. 차별임을 알고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여성에게

②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평등 격차 보고서’ 2012.10.23.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된다.

이렇듯 사회 구석구석 성차별이 잔존해 있었기에 때 대선 때마다 성평등은 중요한 의제였고 그 대의 대통령이 임기 내내 신경 써야 하는 문제였다.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고 법률로 명시된 정책은 그 자체로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시절 여성부가 신설되고 수많은 성인지적^③, 성주류화^④ 여성정책들이 시도되며 여성 인권이 신장되었고, 2006년 호주제 폐지 이후 더 이상 남성만이 호주여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여성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이기에 받는 차별을 보다 예민하게 인지하고 해소하는 것,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성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이다.



©marinequity.blogspot.com

성차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즉 높은 성차별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성해방과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여성대통령의 ‘여성’은 곧 ‘여성주의적’임을 뜻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이 받는 차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했지만 이에서 확장해 여성 그 자체보다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시정하고자 노력한다. 때문에 그 차

③ 남녀 성차별의 개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각종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480쪽 지식백과)

④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다. (480쪽 지식백과)

별의 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까지로 확장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원한 '여성대통령'이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여성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단지 여성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입장 또한 지지한다는 가치관이며 사회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앞에 여성이 붙는다하여 여성만을 위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회를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는 편 가르기가 되고 '여성'이 아닌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게 된다.

차별 해소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그 수혜자는 여성과 소수자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자의 위치를 점하는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성평등을 이루어내면서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대통령'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물학적 여성의 몸이 아니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여성 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는 정상-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인 차별이 횡행하기 때문에 차별의 피해자가 항상 여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생물학적 여성이 실제로 성차별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차별에 반응하는 것과 실제 차별을 경험해 봤다는 당사자성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성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손가락을 베어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차별 역시 당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을 베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아픔을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픔을 추상적으로나마 상상할 수도 있고 다른 상처로부터의 아픔을 대입해 상상할 수도 있다. 차별 또한 마찬가지다. 당사자성은 분명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 당사자성 한 가지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자라고 다가 아냐]

우리가 '여성대통령'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박근혜 당선자의 지난 5선 국회의원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여성주의 이슈와 관련하여 그가 보인 노력이나 업적은 그야말로 전무하다시피 하다. 선거운동 기간 '여성대통령 후보로서 여성의 인권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야당의 맹공을 받았을 때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호주제 폐지와 성충동 약물치료법 추진 정도밖에 없었다.

박근혜 당선자가 오랜 기간 호주제 폐지 운동에 힘을 실으며 함께 해온 것은 맞다. 박근혜 당선자는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전달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는 박근혜 당선자만의 업적이 아니다. 가부장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호주제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여성운동단체와 여성정치인들이 수 년 간 사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 참여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약속했던 것에 있다. 이런 여러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호주제 폐지가 박근혜 당선자 자신의 단독적인 성과인양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가 추진한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애초에 여성 인권에 기여한다고 말하기 힘든 제도이다. 성폭력의 원인은 오로지 성충동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사실상 가해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한다 하여 성폭력 사건 줄어들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의 처벌은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가부장적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여성주의 이슈에의 무관심은 박근혜 당선자가 18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내세웠던 공약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스스로 '여성대통령'이라 자처했던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정책 공약은 기존의 정책들과 큰 차별점도 없을 뿐더러 그 고민의 정도는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못하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여성 공약에는 '여성취업, 승진기회 등 사회적 차별 해소 대책마련'과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등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공약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흔히 쓰이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평등의 대상을 단순히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문제로만 규정한다면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성 전체에 대한 평등을 뜻한다. 단어의 수정은 매우 사소한 변화이지만 후보 나름대로 '여성정책'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김소연 후보는 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차별적인 대우를 시정하고자 하는 공약을 주되게 내놓았고 김순자 후보 역시 차별 시정 및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된 공약을 여럿 내놓았다.

그에 반해 박근혜 당선자는 여성공약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다수 공약에서 수혜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만 한정하여 설정하였다.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공약에서 보육, 임신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물론 보육, 임신 지원 정책은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하는 영역이 맞지만 '여성정책'의 대부분이 이에만 쏠린다면 임신 및 보육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게 된다. '여성인재'만을 지원하는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의 여성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기에 앞서 수많은 여성이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즉 차별을 시정하려는 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자는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하며 선거유세를 해나간 과정 속에서 여성주의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 그리고 이에 고착된 전통적인 '여성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포장했다.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여자의

몸으로 동생들과 제 몸을 건사해야 했던 '가녀린 여성'이었고 '자식 행기는 마음으로 민생을 행기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 방식은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의 고착화된 여성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는 여성인 자신이 지도자로 집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인터뷰에서 '내 평생에 남자들이 여자 뒤에 서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한 50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의도로 '여성 지도자'를 강조한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권층, 그것도 한 나라 수반의 위치를 여성이 점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여전히 사회에는 차별이 횡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여성 및 소수자들은 적극적 조치 없이는 현재 남성만큼의 대우를 받기 힘들다. '여성 지도자'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적극적인 노력과 움직임이 없다면 상징성은 단순히 장식으로만 남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지도자로서 집권한 시기에 여성 인권이 발전했다는 유의미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여성 지도자들은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그대로 고수하는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까지 완수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 하나'는 비난에 부딪치게 만들기도 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집권하던 시대가 바로 이러했다. 대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TV 광고에 나와 알치마를 두르고 인자한 어머니 역할을 해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자신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에게 밥까지 해주는 어머니의 의무도 모두 다하고 있다'고 말해 같은 상황을 연출한 적이 있었다. 가부장제 하에서 사회 고위층에 오른 여성은 흔히 '여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은 전부 다 해내는 슈퍼맘이라 항변하는 것은 내조와 양육을 여성의 의무로 지우는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인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고위층 여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짐을 다른 여성들에게 그대로 지워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로 '여성대통령'으로서 대선에 나섰고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명실상부 부정할 수 없이 '여성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당선자의 행보는 그가 생각한 여성대통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만을 남길 뿐이다. 여성,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수많은 고민은 뒤로한 행보는 그가 '여성대통령'으로서 무언가를 해내려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성'이라는 말을 이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라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

18대 대선이 끝난 지금 박근혜 당선자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여왕으로 즉위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1세의 모습을 롤모델로 끌어오려 하고 있다. '홍당한 여왕 베스'였으나 동시에 영국 최대 절대왕정을 꾸리고 타국을 식민지화한 엘리자베스 1세가 롤 모델이라는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을 여성대통령으로 만들지 현재 상황에선 그저 의문스럽다. '여성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현재 이에 대한 고민이 더더욱 필요하다.

「이화」 86집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화」 86집을 읽으신 이화인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특정 글 혹은 기획에 대한 평가, 86집의 전반적인 감상 모두 환영합니다. 이화인들의 의견은 보다 나은 교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기간** 2013. 03. 11 ~ 2013. 03. 31
- 자격**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학부생 모두.
- 양식** 없습니다.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 방법** 이메일 : ewhaji216@gmail.com
트위터 : @ewhaji216로 감상을 보내주세요.





자유, 평등 그 중심에서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어디다 싶으면 황제어 충두하는 남자
국감하면 심장이 떨려 해외 출국하는 남자
숨겼지만 웅만한 갑부보다 돈 많은 남자
그런 상!속! 하는 남자!
어~ 순환출자~
오! 오! 오! 오! 오! 탄탈세스타일!

위 글은 국내 S모 기업의 편법적 상속과 사업 독점을 패러디한 가사의 일부이다. 공감도 가고 웃음도 빵 터지게 하는 내용들이지만 그 중 생소한 단어가 눈에 띈다. 바로 '순환출자'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인 것도 같은데 정작 "순환출자가 뭐예요?"라는 물음에 명쾌하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듯 순환출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지만 2012년 주요 키워드로 작용했다. 바로 18대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된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순환출자가 경제민주화 정책 안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순환출자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과연 순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 자유와 평등 사이의 위태로운 시소 타기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효율성과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에서부터 나온 이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이러한 탄생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현상이나 소수의 부 독점 현



©http://blog.naver.com/yo_han0225

문재인 전 후보 그리고 안철수 전 원장[●]의 공약과 세부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세 사람 모두 기업의 잘못에 대한 법적 규제를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우선 순환출자란 기업의 계열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서로의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각각 기업이 계열사인 A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고 A기업은 또 다른 계열사 B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며 B기업은 다시 각각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는 식으로 순환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단순히 자본의 이동으로 보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보유한 주식의 양이 곧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주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주식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시에 따르면 각각 기업은 A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A기업은 B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결국 각각 기업→A기업→B기업의 통제권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각각 기업은 직접적으로 B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B기업에 통제력을 가지는 A기업을 각각 기업이 통

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었다.

그런데 같은 개념 하에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제한다는 점에서 모기업인 각각 기업이 계열사인 A기업과 B기업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를 뜻한다. 이 때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기업의 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각각 기업이 A, B, C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만약 각각 기업이 아주 돈이 많은 기업이고 그런 각각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을 규제할 특별한 제도가 없다면 각각 기업은 원하는 대로 이 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여건만 된다면 세 기업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각각 기업이 세 기업의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배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타 회사 주식을 매입할 때 자기 기업 자산의 제한된 일정 비율만 쓸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있으면 각각 기업은 A, B, C기업의 주식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사고 싶어도 정해진 한도 이상의 자본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이 타 기업을 지배하는 정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의 독점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기존의 대기업 독점을 완화하고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이 사실상 이 두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는 사실상 대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반대하는 정책안을 내세운 것이다.

현재의 대기업 독점과 깊이 관련된 두 제도에 박 당선자와 다른 두 유력한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취한 만큼 그들의 경제민주화 세부 공약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똑같은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세 사람의 공약이 어떻게 이토록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을까. 세 사람이 가진 이러한

●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후보라는 직책을 사용할 수가 없어 편의상 '안철수 전 원장'으로 표기하였다.

모순은 경제민주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의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표면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양립하는 동시에 서로 상충하기 쉬운 개념이기도 하다. 자유와 평등이 부딪힐 수 있다니 의아할 수도 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크게 대두되었던 프랑스 혁명 당시 두 개념은 나란히 대두되었으며 모두 최고로 추구해야 할 가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 사람들이 두 개념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유도 평등도 밑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얼마만큼 추구해야 하는가'를 논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의 수준이 신장되었고 그 범위 또한 굉장히 넓어져 두 개념이 부딪히는 접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현재는 평등에 비해 자유가 비대한 상태이다보니 평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꺾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을 해칠 수 있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골자로 하는 정책의 종류 역시 무한히 넓을 수밖에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의 상이 다르며 그 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정책도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민주화' 라는 이름 하에 자유는 침해되고 서민은 배제되다.

결국 박 당선자의 정책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화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민주화 자체의 오류로 박근혜 당선자 정책의 문제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blogspot.com

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하지만 박 당선자는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반대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자유도 존중받아야 할 자유로 인정했다. 현재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이를 '대기업의 자유'라 칭하며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해 버린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박 당선자는 기업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면 충분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독점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만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대기업 독점 문제는 여타 기업들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상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적 규제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은 대기



©superwallpapers.com

업들이 주로 행하는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독점을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가지는 문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민주화가 서민들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한동안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서민과 유리시키고 기업 중심의 제도만을 논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기업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자가 주장한 대로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만의 일일까. 사실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다. 애초부터 경제민주화 정책도 결국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비로소 국가 경제도 좋아져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자신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오로지 기업에만 관련된 것들로 채웠다. 경제민주화를 이에 서민과 관련이 없는 개념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박근혜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은 대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놀랍게도 최근 인수위에서 밝힌 박근혜 정부의 경제 관련 핵심 모토는 바로 '성장'이었다. 박 당선자의 측근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하며 경제 성장이 서민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당선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성장을 증시하는 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의 효과가 서민에게까지 파급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7,80년대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이전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름만 바꾸어 다시 가지고 나온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는 박 당선자가 서민 경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박 당선자의 서민 경제에 대한 고찰 부족은 '창조경제론'이라는 새로운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창조경제론은 IT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첨단 기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

해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도록 만들기 위해 해외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박 당선자의 집권기인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뛰어난 과학 기술의 바탕이 되는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과 금전적 지원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조적·혁신적 기업을 키우겠다는 것 역시 실현되기 힘들다. 해외 취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장려금만 지불하여 해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렇듯 박 당선자는 서민 경제를 중요시한다 말하면서 정작 서민들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부터 유리시켰다. 게다가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들은 이전에 나왔던 논의를 반복한 것일 뿐이거나 그 자체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문제의 원인은 박 당선자가 서민들과 소수자 계층 및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배제한 데 있다.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우를 범한 것이다.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새누리당 제안

●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 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새누리당 정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기술, 지식 기반의 창조과학 등 미래인도 연구 지원
-이제까지 견인해 왔던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적 및 글로벌 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

◎박근혜 당선자 홈페이지

▣ 경제민주화 속 새로운 자유와 평등의 의미 찾기

사실 일반 대중들 역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바라보며 별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박 당선자의 세부 공약을 비판하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경제민주화 정책 자체가 서민들을 제외시켰다는 비판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경제민주화 정책을 관망하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내세우며 문제점이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정책에 투영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문제를 시정하고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위해 박 당선자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경제민주화의 등장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발하여 나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던 빈부 격차 심화, 소수의 경제권 독점 현상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공약 안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안 의제로서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신자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두 개념인 자유와 평등을 새롭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일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복지적 개념과 연관시켜야 한다.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민들이 직장을 얻고 돈을 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 자체가 힘들고 안정적

인 직장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서민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높은 취업 장벽을 허물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고용 안정을 촉구하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취업 지원을 한다 해도 기업에 맞서 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보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서민 경제의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평등의 개념을 노동권 신장과 연결시켜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동등하게 바뀌어야 비로소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이뤄져 서민들의 경제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된다면 서민들이 원하는 경제적 '민주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 역시 불완전하며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를 시정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만들어진 틀 안에 갇혀 생각하느라 정작 잊혀진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민과 소수자 및 소외계층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법안이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복지, 예산의 천덕꾸러기를 위한 변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제 18대 대선 후보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

1	박근혜	소득(8분위까지)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무료
2	문재인	2013년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 및 2015년까지 전체 사립대 등록금 반값 목표
3	이정희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4	박종석	(해당사항 없음)
5	김소연	반값등록금이 아닌 대학체제 개편과 등록금제 폐지 주장
6	강지원	반값등록금 공약들을 포괄리증적이라 비판
7	김순자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폐지, 국공립대의 등록금과 기성회비 폐지

이번 대선만큼 대선 후보들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공약을 내세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대학생들에게만 특혜가 집중된다는 비판이었다. 사실 특정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비단 반값등록금 정책만의 특징은 아니다. 애초에 정책이라는 것은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수혜대상이 점점 커져 다른 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반값등록금으로 돌아와 보자. 반값등록금의 수혜계층은 정말 대학생뿐일까?

복지를 논하다 (feat. 반값등록금)

대학생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한 번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심의 위원회 설치 등 반값등록금을 위한 행보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진보나 보수 성향과 관계없이 여러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값등록금 실천 의욕을 내보였다.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그들이 주장한 공약들은 대중들에게는 꽤나 기만적인 내용이었다. 예컨대 박근혜 당선자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실로 이름뿐이었다. 보통 반값등록금은 대학이 책정한 등록금을 기존의 반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기존 소득 7분위까지 적용되는 국가 장학금의 혜택 범주를 소득 8분위로 확대했을 뿐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줄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반값등록금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 대부분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밑천 없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반값등록금 공약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비판들은 반값등록금 공약의 기만성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소중한 세금을 복지에 쏟아 대학생과 같은 특정 계층에게만 수혜를 주냐며 이를 비판했다. 그들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반값등록금 자체, 더 나아가 복지 정책 그 자체를 비난했다. 애초에 복지 정책 자체가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책이기에 문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어차피 도움도 되지 않고 성공하지도 못할' 복지 때문에 경제 성장, 안보 등을 위한 예산이 감소한 점을 들어 복지를 주장했던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맹렬히 비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대선 이후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해 안보 예산 약 4천억^①을 비롯해 R&D 등 다른 정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나 국방부 측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 의식'이 없다고 비난하였고 각종 언론사들도 복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며 비난의 뜻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안보에 비해 복지에 그리 관대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분쟁 국가인 탓이 크다. 전쟁 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보를 강조해 왔다. 국가 차원에서 '성장'을 국가의 주요 발전 동력

으로 여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전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채택했다. 일부 재벌에 모든 재원을 쏟아 부음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재벌의 성장은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일반화되어왔다. 이러한 정책들에 비해 복지는 상대적으로 당위성이 빈약한 듯 보이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복지'도 억울하다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복지가 '손해'라는 인식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 정책의 비현실성이나 예산부족의 문제 등은 실상 복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예산 증원 과정 없이 이루어져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날치기 예산 통과나 관리상에서 발생하는 세금 누수가 모두 '복지'의 탓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재정 누수의 대부분은 탈세와 국세감면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복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건만 재정 누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지'이다. 복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드는 예산과 복지 행정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써 복지가 예산 등의 문제에 신경 쓰게 만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다.

반복되는 복지 정책 실패로 인해 '복지하면 망한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깊

① VTN, 정부, '군 예산 삭감 비판, 안보 상황 판단 안이', 2013.12

게 뿌리내린 것도 사람들이 복지정책에 불신의 눈길을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권이 복지 정책의 실패를 계속해서 복지의 탓으로만 돌리고 다른 효과적인 정책과 저울질하며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었던 데에 있다. 수많은 복지 정책 실패를 겪으면서 복지 정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배신감과 복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 정책을 둘러싼 난관들은 결과적으로는 복지 자체에 대한 원색적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 복지 실현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다른 정책들과 무조건적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복지'라 이름 붙여지지 않은 모든 정책의 맥락에서도 사실상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흔히 분리시켜서 고민하는 일자리 창출 또한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안보 예산 확충도 복무 군인의 복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반값등록금의 경우에도 인적 자원 향상을 통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얹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 내부만 보더라도 학생 복지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복지 문제, 대학 성적 및 평가 문제 등 사회·정치적 영역의 다양한 요소들과 얹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생각할 때 이러한 요소들은 무시되곤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는 일부 집단의 이해문제로만 한정된다. 이 때문에 어떠한 복지 정책의 수혜자로 드러난 집단들은 이기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자신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지며 다른 집단들과 연대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해당 집단 외의 국민들은 즉각적 이익을 보지 못하는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해 반발하거나 무관심해진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한 편이며 그로 인해 복지 예산 부담자와 수혜자가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전자에게는 복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고 후자에게는 그것이 득이 된다는 정보가 없다.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부담자들은 복지를 경제적 손해라고 간주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극히 일부의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인데 자신들

은 절대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 부담자들은 그 집단들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현재 조세를 부담하고 중산층 이상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지와 연결된 수많은 맥락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미흡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나마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집단이 복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복지 공약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작 직접적인 수혜계층이 수혜 받지 못하고 교묘하게 타낼 방법을 알아낸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혼다.

복지를 위한 변명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위상이 높아진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불과 2007년에 복지 예산이 경제 예산을 넘어섬으로써 겨우 복지국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으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소득층 예산 삭감과 종합 소득세 등의 감세로 사실상 역행해왔다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많은 오해를 사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사실상 '행복한 삶'을 나타내는 단순한 개념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 행복한 삶이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복지의 목적은 사회의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거리를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상향평준화 하는 데 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가 추구하는 바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는 낙오되는 사람 없이 절대적 빈곤을 겪는 계층부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도
록 해야 한다. 또한 복지는 단순히 어떤 집단에 한정된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복지는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이나 노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거시적으로는 국가적 위
기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흔히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 정책' 때문이라
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이는 국제 정세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에서 복지 기반이 구축이 잘 되어있을 경우 국가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복지가
개인의 회생을 돕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여러 인프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복지의 구축 및 유지는 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
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든 복지 국가를 추구하든 복지
문제를 국가적,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실용성 문제로 다룬다. 복지 자체가 사회의
여러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복지의 목적 또한 모든 국민을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만큼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높은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과 이해 없이 무조건 정책을 진행시키는 우리나라와 다
르게 복지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이를 납득시키기 위해 신뢰를 쌓는다. 우선 많은
복지국가들의 경우 모든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복지를
고려하였으며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정보를 제시한다. 복지국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
우, 세금이 개인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꺼이 세금을
낸다. 모든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비스가 넓어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부터
교육·의료 부분의 전반적인 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까지 다양한 분
야에서 복지정책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여러 복지국가들은 복지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

신이 어느 계층이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던 복지혜택이 경제의 순환을 거쳐 결국
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리고 국가가 언제든지 복지 실천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를 하여 국민들에게 발음을 제공한다. 결국 이
러한 복지국가의 국민들에게 복지를 위해 내는 많은 세금은 손해가 아닌 일종의
'투자'인 것이다. 주는 만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자칫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으
나 이들 복지국가들은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부담을 납득시키고 또 국가에게 그
만큼 수혜를 제공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 있다.

'복지 국가'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적어도 왜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복지국가의 이득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 존재하
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삶의 질조차 따지지 못할 만큼 극단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하한의 복지를 받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홍보를 통해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로 귀결된다. 북유럽이 재정 위기를 맞을 때 시장
원리를 도입한 '노르딕 복지 모델'을 통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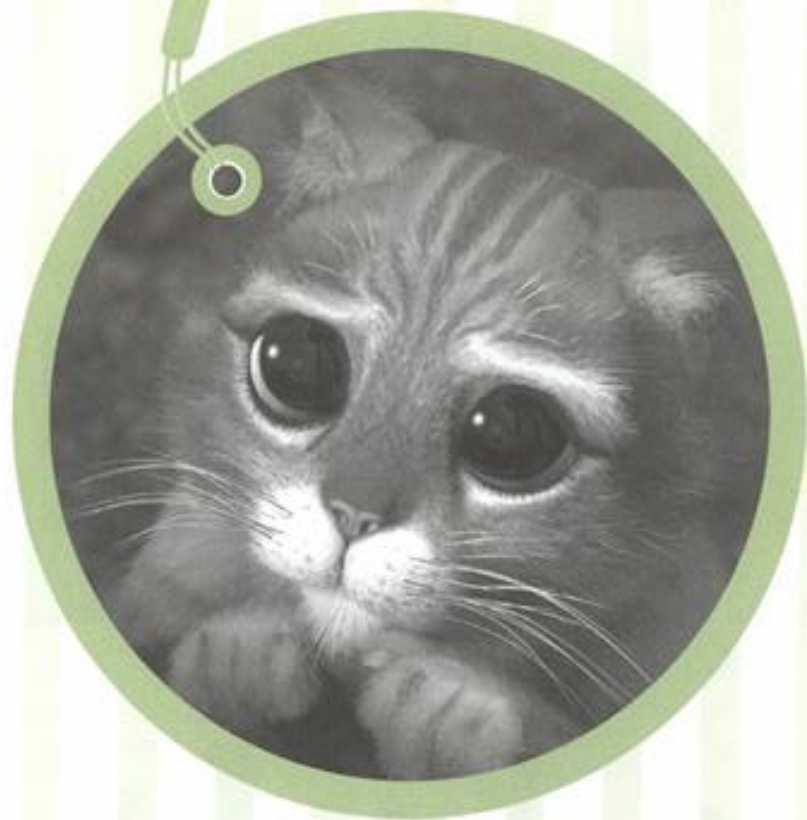
의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그 신뢰에 보답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위기는 비단 복지국가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언제나 국민 개개인을 책임지고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뢰의 근원은 바로 복지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국가의 복지정책들을 신뢰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가가 복지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원동력이 된다.

노르딕 복지 모델의 성공은 사회 보장제도가 국가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복지국가'로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복지의 주체가 일부 부자나 정부가 아닌 그 수혜자인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복지의 수혜자, 부담자라는 양분화 된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을 복지 수립 및 실천의 주체로 끌어와야 한다.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복지공약은 결코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지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짜여야 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가 마냥 문제인지, 과연 예산 부족 문제가 복지만의 문제인지와 경제성장 및 안보에 복지가 감히 견줄 수 없는 정책인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복지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일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부담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 또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복지는 필요 없다는 기독교의 논리에서 벗어나 복지 자체를 냉철히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 정책 모델을 뜻한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체제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출에 사용할 만큼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쓰는 모델이다.



수 / 습 / 모 / 집

- 원서 배부 3월 11일(월) 부터 마감 전까지
- 원서 마감 3월 18일(월)
- 간단한 면접 3월 19일 (개인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입생 환영회 3월 26일(화)

■ 원서배부 및 제출 장소는 학문관 216호!!

문의 : 010-8181-2742 / 02-3277-7692

자격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부생

이, 화, 교, 지, 편, 집, 위, 원, 회

공정을

가르/칩/니/다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오, 나에게로 생명이 이어 주었어 평지를 아 의문!

힘을 받은 자들로 이어지길 도시

비보들로 넘쳐흐르는 도시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까? 오, 나에게로 생명이 이어!

대답을 찾가지, 네가 거기엔 있다는 것

생명과 존재가 있다는 것

화려한 영광을 계속되고

너 또한 한 편의 시가 될라는 것.

여자들의 시는 어떤 것이 될까?

-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시처럼 느껴지는 위 대사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다. 틀에 박힌 책과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라며 '반항'을 독촉하는 대사이다.

이 영화는 '좋은 교육'과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함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 새 교육감과 새 대통령을 동시에 맞은 지금 과연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새 정부 5년간 펼쳐질 교육은 어떠한 것인가?

착한 학생, 나쁜 학생 따로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12년 12월 20일 박근혜 당선자 캠프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지속되는 가운데 손석희 교수는 연령대별 지지율에 관해 질문했다. 50대 이상의 투표권자 중에서는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매우 높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높지 않은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령대별 지지율을 굳이 꼬집어내어 세대 차이를 내보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선거 기간 동안 '국민 대통합'을 주요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 당선자이기에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박근혜 캠프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다른 젊은 세대와 중, 장년층을 아우르며 이끌어 갈지 보여주는 밑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날 박근혜 캠프 측 답변자로 나온 박선규 대변인은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대해 **‘긍정이 아닌 부정을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다. 우리는 긍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향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예로 들며 그들이 2,30대에게 가르친 교육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이 비록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보이는 얼마간의 급진성과 그들이 벌여온 일제고사 거부 운동 등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사회 제도나 권력기관이 하는 일에 '복종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자란 학생들이니 그들 역시 옳아가지는 '부정'을 배웠을 것이며 이 때문에 세대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캠프 관계자의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학생의 모습은 고분고분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착하고 반항하지 않으며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류의 모범생을 원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학생의 상이 어떻

다 보니 그들이 말하는 긍정을 가르치는 교육은 착한 학생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좋은 교육이 '착한 학생'을 길러내는 것인지의 의문이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착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착한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좋지 혹은 긍정이 부정보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 착한 학생과 나쁜 학생 사이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스펙트럼을 생각하고 긍정과 부정 사이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성향 스펙트럼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교육이 고분고분 반항하지 않는 학생을 길러내는 역할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본다면 여기에 완벽히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의 교육자 루이즈 미셀은 교사들의 임무가 지성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수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와 해당 캠프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시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부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다지 반가운 말은 아닐 것이다.

루이즈 미셀의 말과 상황을 참고할 때 현재 박 당선자 측이 가장 저어하는 것은 단순한 부정의 교육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부정의 교육'을 받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상대가 나이 많고 높은 사람이라든가 용감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나쁜'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 만들어 갈 사회가 두려운 것이다.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 갈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집권과 기득권 유지가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박 당선자 측의 이와 같은 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시민의



©틀라크루아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현재 그들이 비판적으로 규정 한 '부정을 가르치는 교육'은 한 사람의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불복종 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흔히 거론되는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 시민을 기르려는 시도 및 교육 자체를 옳지 못한 것이라고 차단하려는 행위는 시민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 선생님, 당신마저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
교육감은
문용린
www.myhappyeu.co.kr

www.myhappyeu.co.kr

현재 대통령 당선자 캠프의 교육 관 못지 않게 관심을 받는 것은 교육 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 당선자의 교육관이다. 교육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문용린 당선자의 임기는 1년 6개월 정도지만 그가 앞으로 맡게 될 서울시 교육감직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파급력이 강하다. 서울시에서 행한 정책을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용린 당선자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으니 보수 단일 후보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자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크므로 이전 교육감들보다 영향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 혹은 정당과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홍보가 되며 투표 시에 이를 꼭 참고하라고 말한다. 때문에 혹자는 같은 보수라도 박근혜 당선자와 문용린 당선자를 엮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선거 후 박근혜 당선자가 문용린 당선자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인 것은 물론이고 유세 기간 동안 각 캠프

와 지지자들이 보여준 홍보들도 공식적 법칙과 달랐기 때문이다.

유세 기간에 문용린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것을 어필했으며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사용했다. 이수호 후보는 민주 진보 후보라는 것을 어필했으며 민주통합당의 상징색인 노랑과 초록색을 사용했다. 그들의 유세를 도왔던 사람들 역시 새누리당 지지자는 주로 문용린 후보를, 민통당 지지자는 주로 이수호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암묵적으로 박근혜 당선자와 문용린 당선자는 결코 땀해야 땀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비록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교육감이 되었지만 처음에 문용린 당선자는 진보 일각에서도 기대를 받던 후보였다. 물론 자신의 색깔없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의도하는 노선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용린 당시 후보가 오히려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도 크다는 평을 했다. 이는 문용린 당선자가 학교 폭력과 부모 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기 때문에 생긴 기대였다. 비록 2000년 교육부 장관 당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당하고 크게 망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울지 몰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을 우선시하는 측에 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부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그를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 측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을 손대지 않고 유지시킨다면 그 중요성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문용린 교수의 당선을 바라기도 했었다. 진보 교육감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인권조례를 보수 교육감 역시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지시킨다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그것이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진보 측의 기대를 확실히 저버렸다. 가장 큰 논란은 역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이 깊다. 그는 유세

기간 동안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했다. 성 소수자는 올바른 지 않은 것이므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할 것임을 밝혔다. 성 소수자 뿐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 문구 전반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일례로 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26일 당선 직후 첫 출석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인권조례를 읽어봤는데 성 정체성 조항은 읽기 좀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으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대목은 조례에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 행사 때 문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용린 교육감 측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피해 입은 교사의 실제 사례를 모집하는 중이기도 하다. 문 교육감의 이야기만 들으면 학생인권조례가 무조건 나쁘며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참이 아니다. 일단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비슷하게라도 교칙을 개정한 학교도 거의 없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칙 개정 반대 서명을 강제하기도 했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부정적인 발언들로 쟁기를 박는다면 그 결과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조례 찬성자들과 학생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한 가지 더 실행 측면의 함정을 꼽자면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서는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조례가

시행되는 동안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멀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조례의 기반이 되는 개념을 모르고 알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인권 운운하는 감상주의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수이다.

게다가 교실 붕괴와 학생과 관련된 수많은 갈등 문제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사회 전체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 학생들만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유로 시나브로 변해왔다. 학생인권조례가 단독 원인 이거나 기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용린 교육감의 행보는 누군가를 차별할 여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혁신의 인물이라는 문용린 교육감 역시 박근혜 당선자와 함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한 것이다.



©howtosurviveschool01.blogspot.com



이처럼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나갈 새 정부의 교육 방침은 새 정부의 기조인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통령 당선자는 올바른 교육과 옳지 못한 교육을 나누고 교육감 당선자는 소수자 청소년의 차별을 고착화시킬지 모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국민 대통합을 모든 공약의 기반으로 삼은 대통령 당선자는 오히려 편 가르기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앞서 말했듯 부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양하고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양한다는 말은 시민 의식을 키우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공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부정

으로 치부하는 것은 편 가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역시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가장 문제라고 여기며 수정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수자는 국민 대통합에서 배제하겠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은 교사의 임무 중 학생 지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교사의 학생 지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은 대통합에서 배제하거나 억지로 혼내서라도 대통합 대열에 합류하게 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새 교육감과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대통합이란 각기 다른 시민을 똑같은 국민 혹은 신민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에 가깝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리 편과 그 나머지를 나누는 편 가르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편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는 소수자를 배척하고 어리거나 약한 자들을 '지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국민 대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은 평균과 정상성의 깃발 아래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사회를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렇듯 지금 진행되는 국민 대통합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다. 지금 새 정부에서 실현하려는 국민 대통합이 잘못된 까닭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먼저 다름의 가치부터 언급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성질 중 하나는 다원성이다. 민주주의는 개성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며 그 서로 다름 위에 세워진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 대통합이란 이러한 다원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로 인해 싸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지자들은 다름을 분열로 보고 있으며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름은 곧 분열이고 사회를 악화시키는 독버섯같은 것이기에 천편일률성이 주요 가치가 되는 것이다. 즉 이들은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성질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새 교육감과 대통령이 왜곡된 의미의 국민 대통합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이용하리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박근혜 당선자 캠프가 그랬듯 긍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향할 것이며 세부사항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 대통합'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다시 아주 먼 옛날처럼 학생은 순종적이고 착해야하고 개성을 감춰야 하고 어른들이 정해진 틀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남과 다른 성적 지향을 발견하면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학생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해도되는 일은 일과 하면 안되는 일지 못한 일이 나날 것이다. 물론 그 일을 나누는 것은 학생 본인들이 아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그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균적인 인재로 남기 위해 시민성을 포기할 것이다. '시민'의 개념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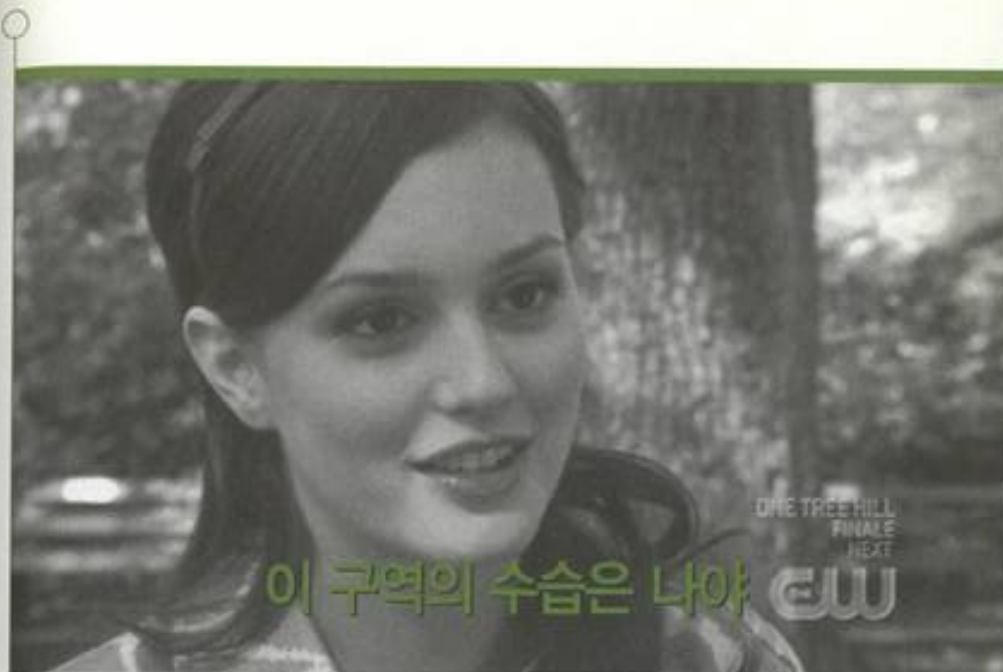
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시절의 묘사같지만 새 정부의 작업이 성공할 경우 나타날 미래이다.

이처럼 왜곡된 의미의 국민 대통합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온다. 길음이 느린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던 문용린 교육감의 캐치프레이즈는 지금의 행보와는 정반대인 것 같아 씁쓸하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면서 왜 학생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기대와 걱정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펼칠 교육 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젊은 층에서의 부진 이유를 교육에서 찾으며 그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징징대는 것 혹은 남 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젊은 세대가 세뇌 당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그 젊은이들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뇌를 풀기 위해 또 다른 세뇌를 진행하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앞으로 긍정과 부정,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겠다는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수습 모집

- ☞ 원서 배부 3월 11일(월) 부터 마감 전까지
- ☞ 원서 마감 3월 18일(월)
- ☞ 간단한 면접 3월 19일(개인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입생 환영회 3월 26일(화)

■ 원서배부 및 제출 장소는 학문관 216호!!

문의 : 010-8181-2742 / 02-3277-7692

자격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부생

이, 화'교, 지'편, 집'위, 원'회

梨花

EWHA 86th 2013 Spring

통제

피해망상 ver.2013

- 096 | 음주의 윤리학
- 104 | 단두대에 대한 성찰
- 116 | 누구를 위한 은밀짜인가

CHAPTER

음주의 윤리학

이화여자대학교

들어는 봤나, 주폭!

주폭(酒暴)

주취폭력(酒臭暴力)의 줄임말.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관 치안정감이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술에 취해 지구대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보고 만들었다. '그는 지구대 등 관공서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릴 정도라면 가정과 직장, 지역주민에게는 오죽 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주폭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민 치안'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폭과의 전쟁'으로 이어진 계기¹⁾이다.

kill this alcohol



최근 한국 사회 전반에서는 술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주폭 척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주폭 척결 캠페인이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 폭력자를 사회에서 근절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업에서는 회식 등에서 술 권하는 문화를 없앨 것이라고 말하고 대학에서도 환영회 등에서 술 권하는 문화를 지양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음주 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등 엄벌주의를 도입하려 한다. 언론에서도 이를 도와 한국 술 문화의 후진성 등을 보도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¹⁾ <http://poliovetistory.com/4078>

이와 같은 캠페인이 인기를 끄는 것은 신문 탑 기사를 장식하는 무서무시한 강력 범죄들은 물론이고 소소한 싸움이나 행패 등 경범죄까지 수많은 범죄의 근원이 술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사회 전반에 '술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흉흉한 세상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 대해 형량 강화와 사형제 존치 등의 엄벌주의와 함께 주폭 척결 캠페인을 내세운 것이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해당 캠페인 찬성자들은 우리 사회가 쉽게 취하고 술에 관대한 사회라고 말한다. 또한 보수 언론은 주폭 척결 관련 기사를 보도 하면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쉽게 취할 수 있고 과하게 술을 권하는 문화 등이 있어 문제라고 말한다. 누구든 술 마시는 것을 즐기고 권하고 아무 때나 이유를 붙여 술을 마시는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단골 비판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치안이 위협받는다 믿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세계 11위로 한국인이 대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과 범죄 혹은 치안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그저 각종 범죄에 술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화률이 30% 정도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모든 변인을 통제하고 술만을 놓고 보았을 때의 연구결과가 아닐뿐더러 공신력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근거라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흔히 하는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을 매우 싫어한다. 범죄자들이 음주 때문에 심신미약상태를 인정받아 죄값을 치르지 않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는 엄벌로 범죄자를 다스림과 동시에 소위 '판악의 근원'이라 불리는

술을 통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주폭 척결 캠페인에 대한 발맞춤으로 해석된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대학교에서 술을 마시거나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개정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대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미 성인이 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지 마시지 않는지를 규제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이라니 법안 개정 근거도 개몽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높은 사람들이 정한 '건전함'을 국민 모두가 내재해야 하는 것인가.

완벽하지도 않고 필요성도 의심되는 법안이라지만 정부 부처에서 공식 발표한 만큼 파급력은 컸다. 실제로 한국외대에서는 축제 기간에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축제가 거의 무산될 뻔 했고 학생회와 학교 측이 갈등을 겪는 등의 진통이 있었다.

학내 음주 금지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가타부타 말이 많았다. 법안의 대상인 대학생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했지만 다수의 대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연하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국가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술파티를 벌이는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더불어 사회가 술과 친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에게 술을 허하라



©ivanutgers.edu

먼저 술과 멀어져야 할 특정 대상 1순위로 지목된 대학생의 사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민주화 열기가 뜨겁던 시절에는 대학생들이 '반란의 계렬라' 역할을 맡아 사회를 바꿀 주체로 대우 받았다. 사회 내에서 차기 지식인 집단이라 존중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 집단으로 기대를 받은 것이다. 억압이 심하고 획일화가 교육의 주된 모토인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한 번에 거의 모든 자유를 얻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억압을 벗어난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의 자유를 느끼며 그들은 사회에 대해 토론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수없이 행동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술은 현실 비판의 촉매제이자 의리를 다지는 요소였고 '자유'였다.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고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어두운 사회 이야기를 하고 그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설파하던 대학생이 되는 나름대로의 큰 자각변동을 겪었지만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 아들도 있었다.

물론 술에 대한 막연한 선호와 강조가 또 다른 억압을 낳았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은근한 소외감 등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기력한 시대에 반항의 중심에 대학생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술이 있었던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대학생에게 반란의 계렬라 역할은 요구되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으니 너희들도 변해서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만이 있을 뿐이다. 지식인으로서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 잘 듣는 인재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대학생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고분고분함을 앗아가는 술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현재 대학생에게 술의 위상은 퇴폐적 놀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학생에게 공부나 스포츠 뺀 이외의 문화는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로써 기성세대 혹은 높은 계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보안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던 대학생들에게 더 이상 '놀이감'들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이제 사회에는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인재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게다가 대가 없이도 압해서 실력을 길러오는 똑똑한 '인재'이기까지 하니 더욱 이익이기도 하다. 동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앗아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대학생이라는 집단을 감시함으로써 힘을 가진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대학생이 아닌 다른 어른들, 흔히 말해 기성세대가 마시는 술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바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높은 계층의 사람이건 낮은 계층의 사람이건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고 감히 비슷하게 많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퇴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밤문화로 지칭된다. 한 국회의원이 출신 지역을 들먹이며 '대구의 뜨거운 밤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은가. 술을 마시면서 가히 변태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동의 받지 않고 행하는데도 이것이 '문화'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을 하는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밤문화'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다. 웬당 성공한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는 저급한 합리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용 노동자가 마시는 술 한잔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 등이 섞여있다고 생각된다. 힘든 하루를 보냈고 앞으로는 힘든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큰 계층이기에 상실감과 절망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강력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며 길가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그 분노가 필터링되지 않고 표출될 확률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받는다.

가히 오만하고 편견에 찬 시선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주폭은 높은 계층의 사람보다는 낮은 계층의 사람일 것 같고 절망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주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이를 따라 술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는 것이다.



Cbelwaybandt.blogspot.com

대로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주취 폭력자의 의미를 넘어서었다. 단순히 술을 자주, 많이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역시 주폭의 범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계급에 대하여 말하면 반동분자 취급을 받는다. 계층이든 계급이든 차이를 언급하면 혁명이나 반란을 꿈꾸는 종자로 인식되기에 사회 계층 분화는 금기시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은 이를 여실히 반영한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주폭은 아니다'라는 계층 분리를 내재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주폭은 문자 그

자 이제 시작이야, 사회 통제!

만취상태의 행패자를 계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만 그 일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차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주폭의 범위를 술 마시는 행위 그 자체로 확장하여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제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주취 폭력자를 주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마시면 주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듯 최근 기사들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술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술이 사회의 주된 악으로 규정되고 술을 제거하면 범죄도 없어지리라는 근거없는 생각이 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술을 없애거나 금지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니다. 금주령을 시행한 나라나 시대를 보면 그 답을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가 금주령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비밀리에 보드카를 직접 만들어 마셨다. 술을 직접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러시아에서는 난리가 났다. 보드카를 만들 수 있다고 소문난 모든 것이 품귀 현상을 겪었다. 설탕은 항상 부족했고 구두약을 정제하면 술의 원료가 된다고 하여 구두약을 말려 병에 찍어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본래 목적인 사회 안정과 국민의 건강은 커녕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었고 밀주업이 횡행하여 금주령은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실시되는 캠페인의 문제는 불순한 수단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폭 척결 캠페인은 특정 계층의 특징인이 술 마시는 행위를 잠재적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선이 확장되게 되면 그 계층 전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게 되고 국민들의 시선을 그 곳으로 집중시켜 선명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사회악을 제거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공통 견해는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주폭 척결은 특정 계층에 대한 마녀사냥의 전주곡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다.

특정 계층을 사회악으로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을 이로부터 분리시켜 모아 놓으면 그들은 그 소수를 무차별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한다. 산발적으로 퍼져있고 흩어져있던 분노와 공포의 방향이 한 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집권층 중에서도 특히 보수 집권층이다. 자신들로 향할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동시에 보수성향을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폭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조작된 사회악은 공포를 낳고 그 공포는 피 지배 계급끼리의 싸움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 간 싸움의 문제점은 결국 사회 전체에 엄벌주의가 퍼진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의 특정인들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동안 사회는 서서히 아래로부터 변하게 된다. 흑자는 엄벌주의를 언급하면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굳이 엄벌주의를 마다할 필요가 있다고 되묻는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억압한 국가이다. 법이 아주 강력하고 처벌도 아주 강력한 국가인 것이다. 많은 이들이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법이 강력할수록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법이 엄하다는 것은 범죄의 범주가 넓다는 것이고 이는 곧 작은 잘못도 쉽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많으므로 소위 결릴 것도 많다. 언제든 '평범한'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www.cristyli.com

또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엄벌주의를 도입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안심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배층은 지속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교적 쉽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서서히 아래로부터 억압을 시행하며 사회 전체를 경직된 사회로 만들 화력이 높아진다. 결국 대학생과 낮은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음주를 억압하다가 평범한 '당신'의 일반 생활도 억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Black Paradise

흑자는 술 마시는 것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찮은 일인데 옹호하거나 할지 모른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하찮은' 행위를 사회가 통제한다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 인 것이다. '내 맛이 아니라 술 맛이다'라는 변명을 받아준 그간 사회 인식의 잘못은 분명 존재한다. 범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통제하고 주폭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행동은 결코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지도층은 단순한 '술 맛'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려는 알은 수는 내다 버리고 그 '주폭'과 '선량한 시민'을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단두대에 대한 성찰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사형의 진정한 대상은 사실상 범죄나 범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형에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원상 복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수백, 수천 번 매달아도 피해자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다 해도 법리학자들의 호사스러운 말처럼 '정의를 회복'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죽은 상태에서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부르짖어봐야 무의미하다. 사형의 진정한 대상은 범죄나 범죄자가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군중이다. 다른 이들에게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살인자를 교수대에 매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형은 전시성을 가진다. 교수대가 높은 것은 전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영도 <피를 머시는 새> 中

● 성범죄가 늘어났고 단두대가 높아졌다

2012년은 유난히도 잔인하고 험악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해였다. 그해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사회의 허술한 치안상태에 대한 비난을 끌어냄과 동시에 사건 자체의 잔인성으로 사회 전반에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외에도 통영, 나주 등 전국에서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의 치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아 처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에게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슈가 되었던 만큼 실제로 제도가 정비 및 개선되었고 대선 후보들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신만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 발생 건수가 실제로 늘어났는지는 의문이다. 사회 구

성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강도 높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일까.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뚜렷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는 없다. 경찰청에서 보도하는 범죄 발생 통계는 실제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하고 모든 범죄에서 신고 건수와 실제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에는 신고죄^①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자를 경원사하는 보수적인 사회의 시선 역시 피해 신고를 꺼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신고율은 높아봐야 할 자릿수에 머물곤 한다. 결과적으로 신고 건수로 실제 발생 건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신고 건수가 늘어났으니 발생 건수 역시 늘어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으나 신고율 자체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②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동 성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거나 줄어들고 있는 등의 특별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③ 하지만 그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언론은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도했고, 그에 따라 엄벌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늘어나는 성범죄 단위: 건



①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만 되려 그러한 성격의 범죄의 신고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권안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이사회여성연구 제50권 2호 [2011], 숙명여자대학교 이사회여성연구소, p97.

③ 2010년 10월 29일 인터뷰

이에 대해 보수정권은 지금까지 매우 착실하게 응답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자주 개입하여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전력투구하라'며 대통령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 외에도 여러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서로 직접 정책성 방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내보였고 가해자를 엄벌로 처벌하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대법원 판결 이후 가해자 조두순은 중경비 시설인 청송 제2 교도소 독거실^④에 감금되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 법적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법제 개편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공포안이 의결되며 2013년부터 적용될 성범죄 관련 법안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 처벌은 범행 대상과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신고죄도 폐지되었다. 이외에도 성범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변화들이 뒤따랐다.

올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 역시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분노를 수용한 공약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범죄자 인권



④내이버 블로그

④ 교도소 교정시설은 경미 등급별로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청송 제2 독거실은 국내 유일의 중경비 시설로, 수감자는 운동할 때도 수갑을 차야 하며 매우 제한된 처우를 받는다. 청송 제2 교도소는 다른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삼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를 주로 수감하는 곳으로, 조두순처럼 형 확정 후 바로 청송 제2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않고 과거에 저지른 범죄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할 뿐더러 혹여나 판결이 잘못된 것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은 살려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형제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고 십 수 년 전까지 사형을 행했던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하지 않기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말을 흔히들 휘소리며 성 인권자인 척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네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반응도 듣기 어렵지 않다. 마치 함무라비 법전처럼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침범했으니 가해자의 인권 역시 침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적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의 인 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 할지라도 그 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것이며 누가 침해할 것인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처럼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인권 침범의 가해자'를 다시 한 명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잘못된 것이라 일컫는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가해자의 인권을 침범할 권한은 절대로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법치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처벌은 오로지 법률에 명시된 '벌'로서 그 형태를 갖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권한은 국가 또는 정권에 귀속된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지어 국민들의 요구로부터 나온 유일무이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국가가 누군가

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을 선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어떠한 수준의 범죄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다면 '그와 동등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그리 과장된 추측이 아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수준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며 판단 주체는 당연히 우리가 아닌 정권이 된다. 국가가 살인과 강간, 그리고 절도를 전부 같은 수준의 범죄로 판단하고 나아가 집회, 시위마저도 그와 같게 생각하는 상황이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전시용 단두대와 폭두각시 대중

엄벌의 진정한 대상은 범죄자라기보다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군중이다. 사실상 엄벌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아니며 실제 억제 효과도 미미하지만 일반 군중에게는 굉장한 전시성을 가진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당신도 언제든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엄벌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제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렇게나 잔인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의 존재는 자신 역시 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확산시킨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는 하나 둘씩 모여 결과적으로 사회에 대한 통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서 언론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2008년 이후로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쏟아져 나왔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카인즈^⑥에서 '성폭력'으로

⑥ <http://www.kinds.or.kr>

전국종합일간신문 검색을 해보면 2008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7년 한 해 동안 성폭력과 관련해 보도된 기사 수는 1,431개인 반면 2008년에는 약 1.5배 증가한 2,015건, 그리고 2012년에는 3,585건에 달한다. 5년 만에 기사 수만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고 2008년 이전에 최근의 성폭력 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9살 아동이 이웃집 남성에게 추행 및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거나 초등학교 두 명이 동시에 강간살해당한 후 3개월 만에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극적인' 사건은 여럿 존재했다. 사실상 실제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 것도, 범죄 수법이 더 잔인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8년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기사는 눈에 띄게 급증했다. 바로 '사건에 전력투구'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이후로 말이다.

게다가 현재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실로 선장적이고 자극적이다. 사건 초기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몇 없이 언론 보도 또한 자중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 기밀이나 다름없는 법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만 해도 사건 초기에는 대략적인 성폭행 상황과 살해 사실만 알려졌지만 후에는 구체적 살해 방식이나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의 '자극적' 정보까지도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게다가 언론은 성범죄 사건 개요와 그 현장을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해 사건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한 사건에 대한 수많은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정보가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가운데 그 사건은 마치 시국 최대의 현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이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중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 보도가 담아내는 피해자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만 보도를 듣는 대중들은 그 대상을 완전히 '남'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범죄가 원한 범죄가 아닌 무차별 범죄일 때 특히나 그렇다. 가해자에게 범죄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공통점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 역시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성폭력의 연속성'을 깨닫게 된다.

사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중은 성폭력에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때문에 아예 그 상황에 당면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정숙하게' 행동해야 하고 아동은 보호자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며 어머니는 아이를 안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모성'을 강요받는다.

범죄에 대한 불안이 극대화되고 현재 사회가 무규범 상태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각인되면 사회 전체에 공포문화가 확산되고 이는 곧 정권의 지배통치 방식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희생자가 있는 범죄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꾼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낯선 이들에 대한 의심을 낳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무너트리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깨트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킨다.^⑨

그리고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정치보다는 법과 질서의 깃발 아래 모여들게 된다. 또한 '몸'이라던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피하기 위해 그 외의 것들의 가치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하향조정한다. 결국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와 임금 등 기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나 관심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몸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권에게 엄벌주의를 요구하고 인권 침해를 묵인한다. 이 과정 속에서 정권은 마침내 어떠한 짓을 해도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바로 7,80년대 독재 정권 당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이유로 당시 정권의 독재와 살해가 묵인되었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 침해가 정당화되었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십 년 전에 불과하다. 단순히 정권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보여지는 것' 이면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⑨ Mizruchi, E.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 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각주 2과 글에서 참조.

당신이 단두대에 올라서기 전에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1957년 출간한 책 <단두대에 대한 성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절대적인 결백을 내세울 수 없고, 그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 판관으로 자처할 수 없으며, 죄인 중의 죄인이라도 그를 제거할 것을 최종적으로 명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언론은 매우 선정적이며 자극적으로 범죄를 보도하고 있고 우리는 범죄 그 자체와 가해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곤 한다. 심정적으로야 가해자 화학적 기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기세를 해버렸으면 좋겠고 ‘저런 놈들 다 죽어버려야 하는데’라고 내뱉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내뱉고 동의하는 사안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목을 죄여오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내가 단두대에 서게 되기 전에 말이다. ●

바로
잡습니다.

「梨花」 85집 사진 출처
오류를 정정합니다.

지난 85집 수록글 중 <나나 : 여배우 민낯 프로젝트>에 실린 사진의 저작권은 '서울독립영화제'에 있음을 알립니다.

캡션이 잘못 달려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는 이화교지편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화, 교, 지, 편, 집, 위, 원, 회

누구를 위한 은팔찌인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A: C님 뭐예요.

C: '○'빠 어디가' 보고있어요.

A: 우리 똥과이(5세, 유지원생) 너무 귀엽죠 하악하악...

B: @@" V ") 은팔찌 절경절경

C: 절 집혀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 제가 뭘 잘못했나요 ㅠ ㅠ

C: 변명은 석에 가서 함시다.

A: 뭘... 근데 아청법 처벌 기준이 뭐죠?

B: 예 보고 하악하악 거르면 다 잡아가는 거 아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철경철경'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를 몇 개 떠올려본다면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범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조두순·김길태 사건을 기점으로 그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종 언론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강력범죄 급증 소식을 주도적으로 전했다. 더불어 피해자 아동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퍼져나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력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의 사례에 분노하였으며 성범죄자의 보복성 범죄율이나 재범률이 높은 것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장하였다. 일부 대중들은 이와 관련하여 사형, 물리적 거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강력처벌 사례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청법'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으며 대두되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을 포함하

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0년 1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0년 4월 15일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 공개를 골자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미 한 차례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2012년 3월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서 아청법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처벌 대상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창작자 및 소지자가 새로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도 포함한다. 기존의 처벌 대상이었던 강간행위자와 더불어 허구의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나 소지한 사람까지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그리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인물이든 표현물이든 간에 음란물을 통해 대상을 오로지 성적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아청법의 개정이 확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청법 그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저 글이나 그림 등에 아동·청소년을 표현하기만 해도 창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보인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걱정한 것이다.

아청법 개정 이후 네이버 검색창에는 '아청법 걸린 사람', '아청법 기준' 등의 검색어가 넘쳐났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처벌 되겠어'라고 코웃음을 치면서도 그 상황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처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머물지 않았다. 대중들이 우려한 대로 여러 창작물들이 적발되고 창작자들이 기소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토렌트로 아동 음란물을 공유했던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① 이러한 처벌 사례가 인터넷을 타고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관련 창작물과 자료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졌고 그래서야 정부는 수습을 시작했다. 정부는 아청법 2조 5항에 '명백하게'라는 용어를 삽입해 처벌 기준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하였다.

① 오마이뉴스, "음란물 단속이 최선? 토렌트 사용자는 말고 있다", 2012.10.25

또한 8조 5항 소지의 처벌 기준도 단순 소지자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을 인지하고 소지한 경우'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다. 아동·



어두운 길을 가려는 우리 아이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http://lundhappybeannaver.com/1203210

청소년이 실제 출
연하는 '성적'인 창
작물의 기준이 무
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련의
소동들이 일어나기
도 했다. 예컨대 아

청법이 개정될 당시만 해도 여러 만화 포털사이트에서는 '교복 입은 청소년'이 나오는 만화들을 거의 모두 연재 중단시켰다. 또한 만화잡지 전문 업체 대원씨 아이도 아청법 개정 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누구도 명확히 말 못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포털 사이트 만화 서비스를 대거 중단하였다^②. 게임물의 경우, 성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아동처럼 보이는 경우 처벌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아청법은 끊임없이 위헌 논쟁에 휘말리는 등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시 하라는데

그런데 아청법이 제재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아동·청소년인가 아니면 음란물인가. 사실 아청법에서 초점은 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즉 미성년자에게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② 이니투데이, "교복 입으면 아동음란물? -영화 '교복'은?", 2012.10.20



최인희 의원실

엄격히 심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는 방송영상매체심의기구 같은 기관에서 음란매체의 심의등급을 규정하였는데 반해 아동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해당 매체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단순히 '음란물'이기 때문에 규정되는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음란물로 여겨지지 않을 법한 것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면 아동법에 의해 음란물로 규제되는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성적인 위험'을 더 받을만한 위치에 있으니

성폭력의 위험에서 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법은 미성년자들이 '성'과 얽히는 것 자체를 규제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다. 미성년자들은 성과 멀어져야 하는 '무성적 존재'이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아동법은 수혜 대상인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억압을 선사한다. 아동법은 일차적으로 흔히 미성년자라고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지닌 사람들이나 등장인물들을 '아동·청소년'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상징하거나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며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킨다. 즉 아동법은 미성년자들을 욕망의 분출 대상으로 보는 시각 및 계기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미성년자를 '성'이 배제된 무엇인가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다. 상대가 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성적 이끌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가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들은 모두 배제된 채 '미성년자'라

는 관점만 부각되어 일반화된다. 정작 미성년자 본인이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성적인 측면을 아예 잃어버린 인간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법은 미성년자들이 성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그들이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권리조차 앗아간다. 이러한 규제는 사회가 가진 통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회는 미성년자들이 자유로운 연애 행위 등 그들의 성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이를 정상사회에 대한 하나의 반향으로 취급하며 성적 표현은 오직 성인들만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정상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난 청소년 미혼모와 같은 이들은 사회로부터 매몰차게 부정된다. 이는 '어린이'이라는 단어가 생김으로써 어린이 문학에 억압이 생겼다는 폴 아자르의 견해⁵⁾와 비슷한 맥락이다. 미성년자를 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가 성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결국은 성에 대한 주체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 억압당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보호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부당한 기대를 강요하는 것은 가히 문제가 있는 시선이다. 더불어 아동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을 구실로 창작 창작자의 의도는 무시된 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창작물의 가치가 평가되고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악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규제 대상에 오르면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억압이 가해진다.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 문화의 가치가 폄하되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동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동법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채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합리화시킨다.

5) 폴 아자르는 어린이문학이 대상이 '어린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교훈적 의미에만 편향되어 서술되고, 어린이에게 다분히 계몽적인 내용만을 주입시켜 그의 주체성을 억압한다고 말하였다.

는 점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공유되기 전에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어버렸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아청법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처벌당하지 않으려고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결국 사람들이 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고찰해보기도 전에 아청법을 반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아청법을 반대할 때 성범죄 방지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도 일부의 사람들은 아청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성범죄 가해자가 강력히 처벌되는 것이 곧 미성년자들을 안전하게 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인권 자체를 반대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청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동 성범죄를 옹호한다는 식의 누명이 씌워지기도 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자체가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중요성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미성년자의 인권보다 '사소한' 것이라고 그 가치를 저울질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결코 미성년자의 인권보다 뒤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개념이 미성년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두 개념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인권이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은 그 선을 적당히 지켰을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두 개념이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는 인권을 가진 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아청법에 찬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아청법에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문제였다. 모두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결코 저울질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들을 두고 취사선택을 해야 하는 구도가 짚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 어느 한 쪽

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아청법의 '철퇴' 를 막아라

물론 아청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 나이에 대한 권위의식이 높은 편이고 성인에 대한 지배와 복종이 당연시되곤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반 및 지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성인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예술적 명분을 구실로 성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아청법이 성적인 미성년자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창작물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의 성'이 무조건 기피되어야 하거나 처벌받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화 〈은교〉는 절음에 대한 성적 욕망을 늙은 시인과 소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2세 소녀에게 느끼는 에로스적 사랑을 서술한 소설 '몰리타'와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작품들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들은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의 결과물이자 예술로 인정받는다. 다른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라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기교를 제약할 순 없다. 결국 어떠한 창작물이 미성년자의 성적인 모습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를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는 작품이라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아청법에서 창작자의 성적 의도를 판별하고 처벌을 내리는 주체가 창작자도 대중도 아닌 구속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성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나 '성적 의도'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다. 오직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만이 기준이자 절서인 것이다.

특정 사람들이 문화의 가치를 재단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창작물만이 소위 말하는 '건전한' 콘텐츠로써 인정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옛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던 민담이 어린이 동화가 될 때 지극히 계몽적인 교훈만을 담듯이 많은 매체들이 지배자의 가치관에 알맞게 의미가 변형되어 선택되거나 버려질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창작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까지 권력자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재단될 것이다.

정작 그들이 설정한 기준에 대해 제약을 받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문화 향유 주체인 대중이다. 문화의 가치를 정하는 집단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집단이 분리되는 것이다. 결국 대중들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그 주체성을 잃게 된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모호한 규정을 내세우며 본보기로 몇몇 사람들을 처벌하면 남은 군중들은 정작 그 통제의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지게 된다. 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며 더 나아가 자기검열을 확신하기 위해 타인까지 감시하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시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시민들 스스로 침해하는 하나의 '관옵티콘'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표현의 자유와 미성년자의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저울질하는 아청법의 잣대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사회가 아청법의 '보호'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청법의 이면에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을 억압하는 관행이 묵인되는 사회적 관념 및 사회 통제라는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무조건적인 억압 및 규제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억압은 사회의 뿌리 깊게 박힌 관념 그 자체까지 어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사회와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화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표현의 자유'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청법은 현재진행중

2013년이 시작된 이후에도 아청법에 대한 논박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까지도 '표현물'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개정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청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단순히 '나 자신이 아청법의 처벌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답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것은 현 아청법은 처벌, 보호의 명목상에서 또 다른 억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시선을 돌려 사회의 성차별적, 성소비적 시각과 무조건적인 억압을 통한 해결방식이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梨花

EWHA 86th 2013 Spring

사회

Stereo Type

128 | 택시법, Why so serious?

138 | 보육, 길을 묻다

150 |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feat. 에너지 음표)

CHAPTER



택시법

WHY SO SERIOUS?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지금 당장은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하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면 널 쫓아내 버릴 거라고 문둥병자처럼 말아야. 그들의 윤리, 규범을 보라고. 그건 나쁜 농담에 불과해. 윤리나 규범 따윈 문제의 징조만 보이면 버려버린다고. 그것들은 세상이 허용할 때만 유효한 것이라고. 너도 알게 될 거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문명화된 사람들도 서로를 잡아먹을 거라고."

《다크나이트(2008)》중

"Why so serious?"



©blog.naver.com/pek7777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하반기 '버스파업'은 단연 큰 화제로 떠올랐다.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측이 11월 22일 모든 버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업 예정 당일 막대한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파업 예정 당일 버스업계 측은 정부 제재와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오전 6시 20분부터 버스 운행을 재개하였다.

이 버스파업 논쟁의 한 가운데에 바로 '택시법'이 있었다. 여기서 택시법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 개정안이 굳이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개정 과정에서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여객을 태운다는 운송수단의 정의가 '노선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태우는 것도 포함하게 된 데 있었다. 바로 이 개정으로 인해 지하철, 버스 등이 받던 대중교통 지원 혜택을 택시업계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이 개정안은 극심한 자금 부족 등으로 문제를 겪던 택시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택시법은 발의된 이후로 계속 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교통' 법률 개정안이니만큼 마땅히 대중교통 모두를 아울러야 했지만 '택시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혜택이 사실상 '택시업계'에게 치중되었기 때문이었다. 택시는 사실 수송 분담률^①이 9%가량밖에 되지 않아^②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 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국회는 택시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억지로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런 택시법에 대해 기존 대중교통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대중교통에게 주어지던 정부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그 지원이 택시업계로 분산되면서 더 감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을 경우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노선이 혼잡해지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택시 준공영제 도입^③으로 인해 기존 대중교통이 전반적으로 감축 운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었다.

대중들 또한 택시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고급교통에 속하는 택시를 택시법을 통해 지원한다면 대중교통 전반에 예산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인상할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승차거부 등 택시기사들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것도 사람들이 택시법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결국 대중들은 택시법을 주장하는 택시업계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으며 택시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택시법 의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택시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택시업계에 초점을 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지원법)'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blog.naver.com/pek777

택시지원법은 택시법보다 택시업계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많다는 평을 받았으며 대중교통 개정안이 '택시법'이 되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대중들 또한 택시지원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④. 그러나 여론의 의견과 다르게 택시업계는 이 지원법이 효과적이지 않라며 반발했고 이에 맞서 파업할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다. 결국 택시법에 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④ '법이 오기려 독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택시법에 대한 논쟁이 왜 이토록 크게 불거졌을까. 단순히 택시법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담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먼저 택시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이 공유하던 제한된 자원 내에서 택시 운영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택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중교통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집단의 문제를 또 다른 집단의 희생 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 대중교통업계도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버스와 택시의 경우 이동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는 필시 자원을 둘러싼 경쟁구도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는 수해를 보기 위해 또는 잃지 않

① 수송분담률은 전체 교통체제 대비 각 교통 수단이 수송을 분담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②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택시의 수송분담률을 9.4%로 명시한 반면 택시업계 측에서는 2%라고 주장하였다.

③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관리 및 재정지원 등의 운영체계를 공영화한 것이다.

④ 미디어리서치에서 택시지원법의 결정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64.3%를 차지했다. SBS 뉴스 게재.

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이 결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들이 그마저도 서로 나뉘어 '밥그릇 쟁기기' 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문제는 택시와 버스업계 모두 지원 예산의 부족이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유사한 난점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법 안에서는 두 업계가 서로 적으로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업계와 택시 업계가 힘을 합쳐 공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야 했다. 한 집단이 아닌 다수 집단의 연대가 있을 경우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도 되고 지지하는 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는 법이다.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집단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연대하였다면 쌍방 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쟁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제한된 혜택에 대해 두 집단이 각각 수혜를 받고자하는 입장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으로 갈라서다 보니 서로 싸워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이 혜택을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작 택시법은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개인이나 회사법인 택시기사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에게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LPG요금은 안정되지 않은 채 날로 오르고 있고 택시 기본급도 하향 유지되는 등 택시기사 개인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택시법 하에서 정부의 지원금은 회사의 소유가 된다. 즉 택시법의 혜택은 일선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아니라 법인 회사들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택시법을 놓지 않았던 민주통합당의 태도는 택시법이 정권 간의 알력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택시법을 아는 일부의 사람들은 택시법이 막대한 예산 부족 문제를 유발할 것을 심히 우려했으며 정작 개개인의 택시기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택시법을 검토할 의지 없이 계속해서 택시법 재의결 의사를 보였던 것은 '거부권'이라는 정부의 견제권 행사에 대항하여 알력싸움을 한 것에 불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이 겪는 지원 부족 문제 또한 묻혀버렸다. 그들의 열악한 상황은 택시법 논란 이전과는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택시법 거부권이 마치 그들에게 주는 일종의 '특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대중교통이 겪는 재정 및 서비스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우 개선은 택시법과는 별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택시'에만 치우친 나머지 기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에게 혜택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의 정부의 방향에서도 문제점이 보였다. 택시지원법이 구체적으로 그 골자를 드러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비교분석이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언론에서 택시법과 택시지원법 중 나은 것을 고르는 여론 선조 조사가 쏟아졌다. 정부는 마치 택시지원법을 비장의 카드인 양 꺼내놓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여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비교한 것이었다. 대중교통의 지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제공했던 택시법과는 달리 이에 택시업계에 별도로 지원을 제공하는 택시지원법은 당연히 택시업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보였고 여론의 호감도도 높았다.

그런데 택시지원법이 완전한 해결책인 것은 아니었다.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다른 운수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여러 통제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지원법의 조항에 따르면 택시가 과대 공급된 지역에서는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며 그 지역에는 택시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조항은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로부터 규제받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다른 조항에 개인택시기사들의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⑤. 대다수의 택시운

⑤ 근로기준법에는 운수종사자의 정년이 없다. 택시지원법에는 택시기사들에게만 별도로 정년 조세를 기재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택시 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택시기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다.

전사들이 정년 이후에 개인 택시업을 이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택시의 정년 조항은 오히려 실업 문제를 가중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였다⁹. 물론 이는 정부가 택시 운행정보 및 운수종사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기도 하며 자칫 잘못하면 택시기사들의 사적 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나마 택시업계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을 '택시지원법'만으로 한정시켰다.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마치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구도를 생성하여 제 3의 대안이 나올 여지를 없앴 것이다. 택시법만이 문제 있는 법안도 아니었고 택시 지원법이 완벽한 법안도 아니었지만 정부 측은 택시법만을 문제 있는 법안으로 취급함으로써 택시 지원법을 미화시키고 택시법 제의결을 주장하는 택시업계 측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요한 건 택시법'

중요한 것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종사자인 개인들 또한 '대중'이라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면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용자 모두 '국민'이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미시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집단이자 개인들이고 모두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택시법이라는 법률 논의 하에서 입법자와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은 모두 별개의 존재로 분리되었다.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물어뜯기 싸움이 생성되었고 정작 다른 대중들은 불평하며 이를 관망하는 구도가 지속된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얹혀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시안적인 이해관계로만 택시법을 바라보다 보니 정작 대중들과의 제대로 된 합의점을 이루

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대안책인 택시지원법 역시 정작 수혜자인 택시업계마저 반발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인 택시업계와 대중교통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의 의견까지 고루 수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택시법으로 인해 업계들이나 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정권 사이의 싸움이 촉발되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택시법으로 생긴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택시업계'로 한정되었던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문제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의 집단을 맹렬하게 비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떠한 한 집단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지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이익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는 착각이었다. 문제인 법률을 시정하고 대중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옳다. 그러나 대중들은 택시 업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래서 실상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또는 더 나아질 바 없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차악 수준의 현상유지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택시법은 법률 입법과 개정 과정에서 대중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택시법 논쟁 가운데서 대중은 기껏해야 호, 불호의 입장밖에 표명하지 못했다. 대중교통이 국민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택시법은 국민들과 다양한 부분과 얹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들은 택시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마치 택시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기 때문에 버스 업계같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들 외의 다른 국민들은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결국 택시법 논쟁에서 보듯이 대중들은 입법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동시에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조종되고 있다. 대중들은 흑백논리로 짜인 틀 속에서 소외당하거나 자신의 실리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논쟁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설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택시법」이나 「택시 지원법」이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택시법이 만들어진 지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택시법 공청회 등 택시법을 다시 들이기 위해 파업이나 공청회 등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심야할증' 등 택시법 대신에 쓸 '택시업계 달래기용' 정책 역시 고안되고 있다. 결국 대립 구도만 달라졌을 뿐 택시법이 가졌던 또 다른 희생자 만들기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떠한 법이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택시법 논쟁을 더 심도 있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양 측의 소모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택시법 찬반 논쟁을 넘어서서 그 법이 필요했던 근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하물며,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필요도 있다. 단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 측이 파업을 골자로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말 많고 탈 많은 사태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할 것이다. 결국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택시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화」 86집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화」 86집을 읽으신 이화인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특정 글 혹은 기획에 대한 평가, 83집의 전반적인 감상 모두 환영합니다.

이화인들의 의견은 보다 나은 교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기간 2013.03.11 ~ 2013.03.31

자격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학부생 모두.

양식 없습니다.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방법 이메일 : ewhaji216@gmail.com

트위터 : @ewhaji216로 감상을 보내주세요.

※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아이 키우느라 휘청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2억 7000만원이라 한다. 서울에 집은커녕 전세 얻어 살기도 팍팍한 실정에 2억 7000만원이라니 참으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아이들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돈 먹는 덩어리'라는 우스갯소리가 납득이 갈 정도다.

비단 돈 때문이 아니어도 부모들에게 보육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많은 부모들이 사회적·시간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보육의 어려움이 조명되고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자 정부는 보육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했으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기만 했다. 논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뜻은 있으나 계획이 없구나

작년 3월 언론에서 흔히 '0~2세 무상보육 정책'이라 부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란 0~2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그 비용을 나라가 전액 부담해주는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이 정책은 지금까지 사적인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보육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 국가가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부모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0~2세 아이의 보육에 대한 가정의 금전적 부담 역시 이 제도로 인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많은 부모들, 특히 아이를 꼭 시설에 맡겨야만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작년 한 해 동안 무상보육 제도는 수많은 논란을

남았다. 어린이집 개수 부족, 예산 결핍 등의 문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정책에 필요한 공간과 예산이 사람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썼다. 그 결과 국회가 빛의 속도로 통과시킨 급하게 무상



© 공공문수노조

보육 법안에 필요한 예산은 원래보다 약 3698억이 증액된 상태였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된 예산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은 전혀 없었다. 결국 국회는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관심 끌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예산 관련 요인에만 있지 않았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육 시설과 보육 방법에 대해 협소하고 일원적인 시각만을 고수했다. 게다가 그 범위에서 벗어난 가정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았다. 정책 초기에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을 시설 보육비 지원, 즉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 보육소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시켰다. 가정 역시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도 나라의 지원을 오로지 집단 보육소에 집중시켜 가정보육을 보육 지원 혜택으로부터 아예 배제시켜 버린 것이다.

정책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바우처'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바우처'란 본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보육에서의 바우처란 보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즉 방문 보육이나 어린이집 보육 혹은 유치원 보육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오직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바우처'라 규정하였다.

물론 급전직 문제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단기간에 정책을 만들다 보면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보육 장소와 방법을 세분화하려면 고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단일한 보육 형태를 선택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부가 미래에 실현할만한 '다양한 보육의 상'에 대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사실 프랑스와 핀란드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보육 제도를 가진 나라들은 전 세계에 은근히 많이 존재한다. 그만큼 우리가 참고할 자료도 많은 셈이다. 한 예로 국제아동보호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어머니와 아이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스웨덴의 경우 공립보육시설을 유치원뿐만 아니라 시간제 집단^①이나 가정탁아^② 등을 포함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물론 이를 우리나라에 당장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나 적어도 다양한 예시들을 참고하면서 미래의 보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그 많은 예산을 현명하게 배분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의 보육 방법에 대한 고찰을 거의 하지 않았다.

■ 일부를 위한 혜택, 하나를 위한 희생

애초에 계획했던 무상보육 정책이 많은 논란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정부는 기존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포기했다.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가정들에게

① 종일 학이가 필요하지 않은 4-6세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며 한 집단 당 한 명의 유아교사와 한 명의 보육교사가 배당된다.

② 부모가 자녀를 포함한 약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다양한 시간대에 가정에서 돌보는 제도를 말한다.

도움이 많이 가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수정된 노선으로 정책을 선화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종일제 보육시설 지원 제도^②에서 수정된 반일제 보육시설 제도^③는 전업주부에게 기존 지원료의 60% 정도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전업주부의 아이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여버린 것이다.

아무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책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무상보육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았다. 애초에 무상보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나라가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마치 나라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부자든 가난하든 돈을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의무교육처럼 말이다. 그런데 수정된 제도는 0~2세 유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던 무상보육을 일부만의 혜택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필요한 가정'이라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그 범위에 속하지 못한 가정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한정적 지원'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시설 보육비 지원이 감축된 대신 보육보조금^④이 각 가정에게 주어지게 되었지만 이 역시도 소득 상위 30%의 사람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육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② 아이가 하루 종일 보육 시설에 머무는 돈을 모든 가정에게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③ 아이를 하루 종일 보육 시설에 맡겼을 때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지 않고 그 반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④ 개인간에서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 말고도 나라가 가정에게 한 달 꼴로 지원하기로 했던 일정한 보육비를 뜻한다.

다. 상위 30%의 소득 기준은 3인 가족 기준 454만원, 4인 가족 기준 524만원이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의 41.4% 정도가 소득 400만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다. 즉 수정된 제도 하에서 맞벌이 가정의 반 정도가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가정'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맞벌이 가구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무상보육의 취지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이다.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 역시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당선자는 기존의 무상보육 정책을 더 확대하여 0~2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시설에 있을 경우 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보육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가정보육비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0세부터 2세까지만 가능하던 무상보육의 범위를 더 넓게 확장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함으로써 3~5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도 무상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누리과정'제도를 만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은 기존의 차등적·선별적 복지를 지양하고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이 발전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장벽이다. 박 당선자의 공약이 보다 치밀해지고 세분화 된 만큼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7000억 원^⑤이 더 늘어났지만 우리는 존재한다. 증액된 금액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미지급금^⑥과 같은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신하여 국가가 그들의 의료비를 대신 내 주

- ⑤ 연합뉴스, "복지부 예산안보다 2천322억 증액, 적년대비 사회복지 12%, 보건 의료 11% 늘어" 2013.01.01
- ⑥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에 필요한 돈을 나라가 대 주는 것을 말한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이란 이 의료급여를 나라에서 채 지급하지 못한 돈을 일컫는 말이다.

는 것인데 이 미지급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가 저
소득층의 의료비를 제
공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하
나의 대의처럼 느껴지
는 무상보육 정책을 위
해 역시나 지원이 필요



© manualidades.ticlisimo.com

한 다른 하나가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니만큼 정치권에
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렇듯 무상보육을 둘러싼 우려와 문제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아이는 집에서 키워야 한다?

무상보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제도를 수립하고 진행하
는 과정 중에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육아에 대한 획일화된 시선도 문제가 되었
다.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전업주부
를 비판했다. 부모 중 누구라도 가정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아이를 키워
야 하는데 왜 그들의 자녀들이 보육 시설에 다니고 보육과 관련된 지원을 만나
는 것이었다.

이 때 사람들은 보육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는 동시에 가사노동의 중요성
을 평가절하했다. 집안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왜 아이
를 시설에 맡기냐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삶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고와 노고를 필요로 한다. 전

업주부들은 평일에도 하루 종일 청소와 빨래 등 가사 일을 해야 하며 주말에는
쉬는 가족들을 위해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직장에 다니
는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 주어지지만 전업주부의 일에는 휴일이 없다. 말 그대
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인 것이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한다.'라는 말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폄하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집'이라는 공
간이 보육에 최적의 공간이라는 믿음이다. 자고로 아이는 '집'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보육되어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한국 사회 안에서 중요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집이 '가정'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 가지
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부모-자식 간의 혈연으
로 이어진 '정상 가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상 가정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가정 내
위치와 규율을 배우고 습득하였다. 결국 정
상 가정의 규범을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써의 보육이 가정에서 이
루어진 것이다.



© 내아이 블로그

지금의 한국 사회는 유교적 관념에서 많이
탈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육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뿌리 깊은 담론이 존재
한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
는 말이 바로 '가정교육'이다. 사람들은 본인
이 생각하기에 성격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
다 생각되는 사람을 볼 경우 그 사람을 두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며 타박한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편부모 가정이나 고아와 같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 어둡고 부정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도 한다.

물론 아이의 보육에 있어서 안전한 보호자의 존재가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만이 안전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육이 가정 안에서만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맞벌이 부부나 몸이 불편한 부부와 같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도 상당하며 전업주부 역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고의 여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으로 보육의 의무와 책임을 가정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의 보육을 가정의 책임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 ■ ■ ■ ■ 이제는 그만 사적인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되겠다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보육은 오로지 개인적인 것 혹은 가정 안에서의 사적인 것으로만 여겨져 왔다는 것을 알



© damboschools.com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상보육에 대해 찬성의 표시를 나타낸 사람들도 그런 이유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보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의 중요성을 다른 측면으로 조망해 새로운 보육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보육에 대한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바로 1차적 사회화로서의 의미이다. 보

육 과정에서 아이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길러지는 동시에 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행동들을 습득한다. 또한 이 시기에 아이들은 자신의 성격과 미래 가치관을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사회화라는 것은 곧 '정형화된 사회의 틀에 맞춰 인간을 빚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사회화가 오로지 부정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보육 과정을 통해 개인은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주체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시기의 보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의 보육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기간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시기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작 이런 보육의 중요성을 포함한 무상보육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의사를 보인다. 아직도 가정의 보육 능력을 맹신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처럼 사회화가 집 안에서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는 것과 같은 사회화 과정은 때로는 부모보다 타인에게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이들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에 다닌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정에서는 배우지 못할 새로운 경험을 한다. 결국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정이 무조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렇듯 사회적 행동을 배우는 과정이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화로서의 개념이 실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육의 그 의미가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대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이 공공 영역으로 포함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성은 바로 보육과 보육 지원이 가지는 복지 제도적 의미이다. 국가적 차원의 보육 지원은 오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만 하는 수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개념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란 것은 참으로 애매할뿐더러 사실상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을 완벽히 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보육은 가정이 온전히 책임지기 힘든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보육 지원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보육은 부모와 아이 양 쪽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지만 보육 지원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육은 선택이 아닌 권리인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다. 따라서 보육은 모든 아이들이 기꺼야 할 필수적 과정이며 아이가 자라나는 데 있어 정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관해야 할 공적·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를 부탁해

결국 보육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공공적 영역에 존재하여야 하며 모든 아이들이 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사회를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육을 사적인 것으로만 바라본다. 미래의 아이들이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이 공적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여전히 개인의 사정과 같은 사적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는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높이 뛰어오르기만 소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보육의 상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실현 이전에 일차적으로 사회 내에서 보육이 가진 공적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실수 요자인 각 가정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정책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feat. 에너지 음료

이화여자대학교



(전략)

"틀렸소, 잘못 알았소. 핫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 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적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 저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나는 취(酒)할 뿐이요."

하더니, 흥연 어조(語調)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아, 유위유망(有爲有望)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아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랄 말이요."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쉬다. 물큰물큰한 술냄새가 방안에 흩어진다.

(후략)

위 글은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의 일부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암울한 조선 사회' 때문이라고. 물론 현재의 우리 사회는 '암울한 조선 사회'처럼 술을 권하지는 않지만 대신 에너지 음료를 권한다. 대놓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에게 날개를 달아 줄거야'라며 에너지 음료와 함께 활기찬 삶을 살기를 권한다. 마시기 싫어도,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도 사람들은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열심히 일한다.

에너지 음료 in 2013 대한민국

몇 년 전 해외에서 일명 '에너지 음료'라 불리는 음료수들이 대거 상륙했다.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레드 불', '변 인텐스', '몬스터'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음료이다. 외국 회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핫식스'라는 제품을 출시하

었는데 이 음료는 사이즈도 다양해지고 기존 제품보다 약한 라이트(light) 버전까지 출시되었으니 그 인기를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음료들의 특징은 맛 그 자체보다는 카페인이나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웬만한 커피보다 훨씬 높은 카페인 함량을 자랑하고 있으니 각성상태를 유지하기에 아주 용이하다. 핫식스의 경우 '정신차려! 핫 식스'라는 카피를 이용하여 이러한 각성상태를 강조하기까지 한다.

말 그대로 일정 시간 '힘'을 내게 해준다는 점 때문에 에너지 음료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바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음료는 밤새워 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과제와 시험 등에 치이는 대학생들과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에게 특히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에 이어 초등학생들까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신다고 알려져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걱정만 바대로 이 음료들은 몸에 그다지 좋지 않다. 다른 이유는 제외하고서라도 카페인과 타우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주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신다.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이 음료를 마시고서라도 깨어있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노력'은 과연 본인이 진정 원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물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그들을 깨어 있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떤 외압'에 있다. 애써 깨어있지 않다면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한다는 압박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너무 많다고 말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시킨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가끔 벅겁다는 생각이 들어 옆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 불만 없이 일을 하고 있기에 혼자서 차마 일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그랬다간 자신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지 모르니까 말이다. 그저 남들이 하나씩 그

역시 사람들처럼 시류에 편승하여 '나는 뒤떨어지지 않았어.' 혹은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라는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위안은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이는 에너지 음료의 유행이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번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학창시절부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안심한다. 세 시간 자면 좋은 대학에 붙고 네 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삼당사락'이라는 한자성어가 만들어질 만큼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한다. 또한 어릴 때부터 그런 자학을 칭찬으로 들어온 탓에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상황에서 안심을 찾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의도치 않은 자기 학대는 회사원들에게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혹자는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으니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회사회원이 사생활을 운운하며 쉬고 싶어하는 것은 버릇없거나 기본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는 곧 평판과 관련이 있고 평판은 곧 인사고과와 관련이 있기에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힘들어도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 강도는 개인의 성실성과 열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냥 단순히 일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뿐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회사가 조직을 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사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사원 개개인은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이윤만을 생각하여 일을 추진하기에 생기는 문제이다. 또한 이에 따라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의 상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왜곡된 데에서 출발하는 문제이다.

사회에 만연한 자기화대 퍼레이드와 이를 호숫하게 지켜보는 기업

위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몸으로 배우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기
에 생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1인당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그
런데 국민 총 생산에 비해 최저임금이나 평균 임금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오히려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 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일당백(一當百) 수준을 해 내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받고도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이런 시스템은 물론
'효율'적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아을을 이끌어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때의 효율성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효율성일 뿐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게 이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혹사 그 자체다.

한 때 사표에 어울리는 글씨체는 무엇일까 하는 물음에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굴였으니 휴먼글리프체가 어울린다는 유머가 유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
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러한 '효율성'을 자랑스러워 한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시간
노동한다는 것을 국가 경쟁력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종
류의 근면, 성실이 우리의 특징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혹사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결과 중심적 시
각에 의해 좌절을 맞는다. 그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
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효율성의 상이
나 그 추구 방식에 이상이 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이 정체가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만 한다. 따라서 서로를 더 채찍질하고 몸으로 배우는 효율성을 강도
높여 추구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소년들도 이를 본받아 몸으로
배우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학생들 역시 OECD 국가 중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
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길다. 사실 성취 또한 대단하다. 학업 성취도 평

가 등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국제 올림픽아드를 석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성취는 1등만을 목표로 여기는 사회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 따
라서 이들 역시 자신의 노력이 아직 부족했다며 더 할 수 있다고 서로를 학대해
가며 노력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의 효율성 추구인 것 같은데 말이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현재 효율성
이 오로지 기업과 관련해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
로 생각해봐도 효율성은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어울리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러
나 이 효율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기업 중심 문화인지 노동자 친
화 문화인지 구분될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효율성의 기본 정의는 '들인 대가나 노력에 비하여 훌륭한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나 성질'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억압구조로 '착취'하는 방법부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노
동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효율
성 중 아마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초기 자본주의 시절 그랬던 것처럼 임금은
무조건 줄이고 사람은 최소한만 뽑아서 긴 시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원시적인 방법이다. 노동자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
지 회사의 이윤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역사가 있기에 사람들이 효율성이라는 말을 불편해하는 듯 하
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윈윈(win-win)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효
율성조차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배집단이 잘못된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휴일을 줄이고 야근을 늘려 서로를 몰아붙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 입장에
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일당백(一當百)으로 일 하는 것
이 회사에도 좋고 내게도 좋은 효율성이지.'라고 생각한다. 분명 자신은 혹사당

하는 노동자인데도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박혀버린 것이다.

교육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지배집단 이데올로기 내재화를 교육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은 '선택'의 방법으로 피지배집단을 다스린다. 공권력을 위시한 폭력으로 대표되는 '억압'의 방법으로는 똑똑해진 대중들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지배집단은 교과서와 대중매체에 침투해 자신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가 지배집단이 아니라도 어린 학생들이 지배집단을 선망하고 닮고 싶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서에는 자본가들의 성공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실려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지배집단의 힘과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올바른' 학생들은 불공평한 세상에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런 야망을 가진 학생들을 예뻐하며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여 세상을 자본가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자신은 착취당하면서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몸으로 배우는 효율성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효율성

그렇다면 묵살된 개인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지배집단의 시각을 알게 모르게 내재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를 위한 효율성은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초점을 미시적인 것에 맞추어 시각을 전환해보면 다른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나라가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이다. 일단 내가 과로로 쓰러지고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한국인데 회사만 성

장하고 나라만 잘되면 무슨 소용일지 생각해보자. 다소 불경할 수 있고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그 때에도 힘들게 일하라는 효율성을 지킬 것인가. 아마 누군가는 지금보다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고 사생활이 갖고 싶고 취미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기업 중심적인 효율성 개념과 이에 편승한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예전처럼 젓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로서는 감히 한 번 상상하기도 힘들고 잘 그려지지도 않는 '노동자 친화 효율성'을 추구하는 나라로는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의 국영기업인 오슬로 에너지 사장은 한 때 노동자 친화적인 기업 운영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고용주의 입장인데도 일반 노동자가 자신의 입장을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노조에 연락을 취한다. 노조에서는 입사 후 회사에 실망했거나 안 맞는 사람 혹은 다른 직업군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들은 승인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이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재교육 시기의 임금은 회사에서 지불하며 원하는 회사로 이직이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사직 처리가 된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회사가 도와주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을 책임진다. 이 제도는 전 연령대의 직원들이 모두 활발하게 이용하며 지위가 높은 임원들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신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설명하며 그는 자신이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노동자가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생산성 향상도 불가능하며 고객 만족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력한 노조만이 노동자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므로 다소 과격하더라도 강한 노조가 회사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노동자가 탄압받는 사회를 비판하며 고용주들도 나쁘지만 노동자들이 더 이해가 가

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노동자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가히 노동자 천화 효율성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불릴만하다.

끝으로 그는 자신이 노동자를 중시하는 이유가 관련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배집단의 가치를 내재화했던 데 비해 이 사회는 확연히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는 노동자의 중요성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노동자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이는 노동자의 자기 효능감 혹은 자존감을 인정하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이 본인의 가치를 지배계급과 비교하면서 찾지 않고 노동자라는 그 자체로 온전히 찾도록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본인도 좋은 환경에서 존중 받으며 일하니 좋고 다른 이들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니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사회 인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99%인 노동자를 위하여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부지런함'이 우리의 국민성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식이나 복지 등을 오히려 불편해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학대에 가까운 노력과 왜곡된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의 관례고 문화이기에 오히려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친화적인 효율성을 구현하는 회사가 심심치 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제니퍼 소프트, 심플렉스 인터넷, 이파피루스 등의 성공은 부지런한 '우리 국민성' 운운하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 회사는 안식년을 제공하며 야근도 거의 없고 비정규직도 없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 받지 않고 육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연차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도서 구입 비용은 물론 여행비용도 제공해준다. 이 회사들은 우리 사회 기준으로 다소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노동자 배려 중심의 새로운 효율성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take it easy

밝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해줄 것 같은 에너지 음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 숨겨져 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각종 에너지 음료 광고가 무색하게 지금 현대인들은 '노동을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무조건 남들과 달라져라,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당신이 사는 그 방식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의 탓일지 아니면 어떤 거대한 구조의 문제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梨花

EWHA 86th 2013 Spring

여성

가장 보통의 존재

- 162 | L-Roommate
- 170 | [매체비평] 페스티벌
- 180 | 폴리아모리
- 188 | 생태주의 - 어느 소식 중독자의 고백

CHAPTER

L-Roommate

이화여자대학교



0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포탈 N사에서 연재된 <어서오세요, 305호에>라는 웹툰이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스무 살, 대학생이 된 김정현은 아는 형의 소개로 룸메이트가 있는 자취방을 소개받게 된다. 가족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거나 함께 야동을 시청하는 등 시트콤이나 나올 법한 룸메이트와의 일상을 기대하며 김정현은 한껏 들뜬다. 그리고 이사한 첫 날 김정현은 룸메이트 김호모가 게이임을 알고 경악한다. 그 후 나가네 마네 하면서도 둘은 서로 조율해가며 1년 동안 함께 살아 나간다. 자취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김정현이 설레던 것처럼 나도 대학생이나 자취생활을 상상하며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웹툰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으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내게 김정현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서 살게 된지 반 년 좀 지나자 앞으로 살 곳에 대한 걱정이 급속도로 커졌다. 고민 끝에 최선의 선택은 자취라고 결론 내린 나는 가장 먼저 룸메이트부터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주변 월세가 너무 비쌌기에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자체였다. 나는 쉽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룸메이트란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랑 함께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내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를 한동안 고민했다. 난 상대방이 청소를 안 하거나 불을 켜놓고 자도 별로 신경을 안 썼기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조건 같은 것이 딱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지 떠올리지 못했을 뿐 최소한의 조건은 분명 존재했다. 같이 살 사람을 고를 때 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물론 우리 학교는 여대이고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썼던 룸메이트들 역시 여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룸메이트를 택할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도 했다. 가뜰이나 좁은 내 인간관계 안에 애초에 여성 아닌 자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남녀공학에 다녀서 주변에 여성 아닌 존재가 여럿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성과 방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동성인이 동성인 경우와 이성인 경우의 내가 느낄 심적 부담감은 정도가 매우 다르다. 주변의 일반적인 시선만 생각해봐도 그렇다. 가족, 친지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면 누구도 그 둘을 그냥 친구 사이나 단순한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이성'이며 '함께 산다'는 조건만으로도 그들은 애인 사이이며 이미 섹스한 사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동성 룸메이트라면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방만 같이 쓸 뿐이라고 쉽게 예상하는 반면 이성 룸메이트라면 자연스럽게 '보다 깊은 관계'를 예상하는 것이다.**

사실 주변 시선의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한 집에 산다면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자의든 강제든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손가락질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설령 '절대로 강간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여성의 불안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남성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 상황에서 이에 제대로 반항할 수 없을뿐더러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그렇게 왜 남자랑 살았냐'는 비판을 들으며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흔히 여성은 '이성'인 남성이 아닌 '동성'인 여성을 룸메이트로 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바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나 나 역시도 '동성이 아니라면 불편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여성 룸메이트를 구했다.

마침 여름방학 두 달 동안 기숙사 방을 함께 쓴 룸메이트 A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다. 게다가 A와는 성격 면이나 생활습관, 사고방식 등에서도 잘 맞는 편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2학기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다가 자취를 시작하기로 약속

했다. 집을 구하는 시기나 준비해야 할 것 등을 간단하게 상의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어질 A와의 생활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다. 사실 고민할 거리가 없기도 했다.

2

같이 살기로 약속한지 보름 쯤 지났을까. A는 내게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했다. 당시 나는 '아, A는 레즈비언이구나.' 라고 간단히 납득하며 별달리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닌 룸메이트로서의 A를 떠올리자마자 나는 A와 같이 살지 말지를 망설였다. 그 고민은 함께 집을 구하고 같이 살기 전까지도 머릿속을 떠돌며 심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기숙사에서 두 달 가량 방을 함께 썼고 그 동안 문제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썸찹은 기억만 남아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더 썸찹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서로 같이 살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던가. 더군다나 내 나름대로 동성애에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같이 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납득하기 힘들었다.

직접에 와서 결론을 내리자면 나는 A가 레즈비언임을 알았을 때 내가 성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겁을 냈었다. 가감없이 표현해 나는 A와 같이 사는 동안 강간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마치 남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새워야하는 상황에 처한 여성이 성폭행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우습게도 A가 레즈비언임을 물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같이 살며 A가 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았다. **A의 성애를 알고 난 후에야 성폭행의 가능성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는 곧 내가 성에 그 자체를 성폭력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뜻했다.**

사실 성애와 성폭력은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다. 성애는 성폭력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폭력은 성애나 성욕 그 자체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강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관계'를 통해 더 잘 설명되곤 한다. **하지만 나는 A가 실제로 나를 성애화하지도 않았고 그럴 틈새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성애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지레 겁을 먹었다.**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성애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성폭력은 그 층위부터가 달랐는데 말이다.

게다가 나는 A를 당연히 이성애자일 것이라 전제했다. A는 내게 자신의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남자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서 애인을 '남친'으로 해석했다. 애당초 나는 A가 레즈비언 혹은 성소수자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에 수많은 동성애자가 존재함은 당연한 일임을 알았고 여성학을 배우며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세상을 비판해왔는데도 말이다.

내 공포와 당황은 바로 여기에서 왔다. 나는 너무도 당연하게 A는 이성애자일 것이라 생각해 내 자신이 A의 성애와 상관이 없다 단정했으며 그 때문에 성폭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렇기에 보통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연상하지 않을 동성 룸메이트로부터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당황하고 고민했던 것이다.

3

애당초 룸메이트를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성애 중심적 사고는 내 마음 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같이 살 사람의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남성을 지워버린 것이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의 발현이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남성이라면 필연적으로 성적 긴장감이 흐를 수 있음을 부담스러워한 것, 내가 성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모든 남성 집단을 이성애자로 규정했기에 가능한 생각이었다.

사실 '함께 사는 것'은 신뢰의 문제다.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서건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건 어떤 이유건 간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줄 것이라는 신뢰, 최소한 내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금전적,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것 역시도 포함하게 된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쨌거나 A와 나는 잘 살았다. 집안 사정으로 A와 헤어지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다. A는 내가 룸메이트를 필요로 했던 이유, 즉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한 공간 안에 있더라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더할 나위 없이 충족시켜 주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오면 거의 항상 서로에게 하루 일과를 털어놓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었으며 참 많은 것을 공유했다. 그리고 주변 누구보다도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기에 우리는 '자신'에 관해 참 많이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 수많은 대화들은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으며 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A는 동성 간 성폭력에 민감한 편이었고 '성폭력'이라는 것의 범위는 정말이지 넓었다. 성폭력의 범주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 즉 여학교에서 흔히 하는 짓국은 장난들처럼 몸에 손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성폭력이 신체 접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A도 알았고 나도 알았다. 하지만 내 어떤 행동이 A에게 성폭력으로 여겨질지 A도 모르고 나도 몰랐기에 나는 그냥 전제적으로 조심하기로 했다. 원래 나는 집 아무데서나 옷을 훌훌 갈아입곤 했지만 A와 사는 동안에는 양전하에 구석에서 갈아입었고 훌렁훌렁 벗어던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원래 집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 것치고는 최선을 다해 꽤 잘 갖춰 입고 살았다. 같이 살기 이전에 성폭력을 두려워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는 오히려 내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까 조심하며 살았다.

A 역시도 내가 폭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며 조율하려 애썼다. A의 애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되는가의 문제가 대표적

이었다. 사실 그냥 친구라고 말하고 집에서 재운다 하더라도 난 그 사람이 A의 친구인지 애인인지 알지 못했을 테지만 이것이 '신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A도 알고 나도 알았다. 성별의 문제를 떠나 친구와 애인은 그 관계도 감정도 행동도 다르다는 것에 서로 동의할 했기에 A는 되도록 내 이야기를 듣고자 했었다. 나는 되도록 애인은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A는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A의 애인이 집에 오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타인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러한 조율 과정은 힘든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는 생판 남이나 다름없던 사람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었고 배려였다. A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 배려가 더 필요하거나 덜 필요하진 않았다. 우리는 그저 나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두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며 특별한 고생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은 사정상으로 살게 되었지만 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할 정도로 말이다.

사실 세상이 이성애 중심적이라는 것, 이성애와 다른 성애에 우열이 없다는 것, 최소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애 중심주의는 편견이 아닌 척, 당연한 것인 척하며 생활 속에 깊숙이 파리를 틀고 있다. 너무 잘 숨어있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여금 성애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탓하기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폭력을 저지른 것은 나쁜 일이며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지만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편견은 그 사람 혼자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이루는 모든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편견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사람 모두의 노력, 나아가 편견을 창조해낸 그 '모든 것'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0

<어서오세요, 305호>는 1년 뒤 김정현이 군대에 가면서 자취방을 나오고 룸메이트 김호모와 헤어지면서 막을 내린다. 1년 동안 김정현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애초에 성소수자 이야기를 주제로 한 웹툰이었기에 그 사람들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람들로 국한되기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김정현의 편견이 해소되어가는 과정 그 전체이다.

김정현은 사실 '김호모를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에 떠밀려 있었기에 그 상황은 김정현에게 전적으로 부담이 지워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김정현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자신 안의 편견을 없애고자 애썼다. 그 과정은 룸메이트 김호모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고 김정현 그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김호모와 김정현은 1년 동안 잘 살았고 그 이후로도 잘 지냈다. 지금 A와 내가 그렇듯 말이다.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지 않나?



당신의 애인이 꿈꾸는 섹시판타지

페스티벌

이화여자대학교

11월, 살맛나는 밤의 축제가 시작된다

●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 '취향'이라는 말이 있다.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의 줄임말로 개개인이 가진 취향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달라는 의미이다. 결국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자는 뜻을 담은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취향'되는 사회에 살고 있을까. 아마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취향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수용하지만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취향은 이상하다 여기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 취향의 경우 그 엄격함이 더 강해져서 어떠한 종류의 성적 취향은 금기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취향들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흔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비정상적인 취향'들이 과연 절대적으로 틀린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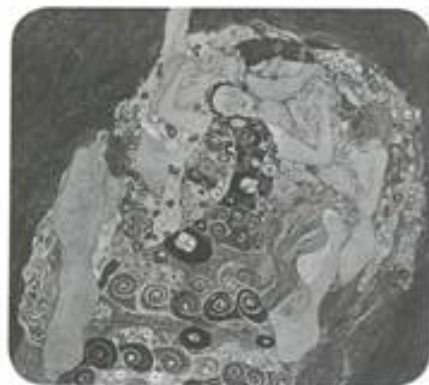
● 그저 꿈이었던 환상들을 내게 보여줘, 에로티시즘

● 사실 나는 '수트 성애자'다. '남자의 완성은 수트'라는 말이 흔히 쓰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내게 수트는 남자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의복이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가 없었던 연예인도 수트만 입고 나오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캐주얼을 입었을 때 내 안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되었던 사람이 수트를 입으면 +200점짜리 사람으로 변모할 정도다.

나는 또한 '목소리 성애자'이기도 하다. 비주얼보다 목소리에 더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외모가 멋진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목소리가 멋진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동굴 바닥을 짹짹 채울 것만 같은 낮은 울림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이 정도면 얼굴 안 보고 목

소리만 들어도 백만년 천만년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나는 이성애자여서 내 성애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시켰지만 사실 사람들의 성격이 제각기 다양한 것처럼 그들의 성적 판타지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이렇듯 사람들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적 판타지를 '에로티시즘'이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에로티시즘'이라는 단어를 변태적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개념으로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에로티시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 이상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동원과 원빈에게 자지러지고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는 것도 설령 본인에게 성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에로티시즘의 일종인 것이다.



©윙키미디어

그런데 이런 에로티시즘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용인'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으 저건 뭐지?'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러한 성적 취향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흔히 SM 플레이, 교복 사 모으기, 속옷 사 모으기 등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

하지 않은 취미들이 비정상적인 에로티시즘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리고 이런 성적 취향들은 이상하고 변태적이며 '정상적이고 안전한 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병리적 현상으로 취급된다.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그 취향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 사람이 가진 성적 취향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이상하고 변태적일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하며 범죄를 유발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을 무조건 잠재

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으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 영화 <에스타반>은 소위 일컬어지는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영화는 한창 풍기문란 단속 캠페인이 진행되는 마을을 무대로 삼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니버스 형식으로 다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화에서 적마다의 독특한 취향을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선생님, 철물점 아저씨, 오델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누구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이다.



©(주)시너지 하우스

남편과 사별한 한복점 주인인 순심은 어느 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사디스트적 취향을 발견한다. 그리고 철물점 주인 가봉을 만나며 우연히 서로의 사도-마조히즘적 취향을 알게 돼 SM 플레

어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할 것만 같은 고등학교 선생님 광복은 사실 여자 속옷을 사 모으고 직접 입어보기도 하는 독특한 취향이 있다. 또한 그 동네에서 오델을 파는 젊은 청년 상두는 사실 사람이 아닌 인형 친구와 사랑에 빠지며 그를 애지중지 돌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을에 모여 산다니 '이런 취향 한 데 모아 놓기도 힘들겠네.'라는 목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만큼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하기만 한 비주류적 취향

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영화의 주인공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화는 그 사람들을 굳이 부정적으로 비추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조명하고 본인들의 성적 취향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코믹스럽게 풀어갈 뿐이다.



©(주)사너지 하우스

예를 들어 광복과 상투가 동시에 여성 속옷을 잡고 서로 만지작거리는 장면은 자칫 불편하고 껄림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건장한 남성 둘이 레이스 속옷을 가지고 “제가 먼저 끌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요”라고 주눅거리며 이야기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재미있기도 하다. 또 순심과 기봉이 ‘밤에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허둥지둥 둘러대는 장면 역시 웃음을 선사한다. 한창 검은색 줄줄이 코스튬을 입고 SM 플레이를 하다가 경찰이 부르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와 아무 일 없었던 듯 연기를 하는 모습이 뻔뻔해 재미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코미디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영화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고민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진지하게 비춰주기도 한다. SM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순심이 던지는 “SM 하면 지옥 가니?”라는 대사는 자신의 취향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순심 자신도 SM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이라 여겨진다는 것과 이러한 행위를 하면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순심은 “그래, 지옥 한 번 가자”라는 말로 SM 플레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전까지 전형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았던 수동적인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희열을 느끼게 된다. 나중에는 대낮에 가죽 옷을 입고 채찍을 들고 나와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를 활보하기도 한다. 지금껏 집 안에서만 혹은 으스스한 밤이 될 때에만 여성 슬립을 입었던 광복도 나중에는 그 옷을 입은 채 햇빛을 받으며 욕상을 질주한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소망을 보여준다. ‘자신만의 비밀’이었던 에로티시즘을 대낮에 공개한다는 것은 곧 항상 죄지은 것 마냥 숨겨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자신의 취향을 비밀스러운 것으로 숨겨 왔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취향을堂堂히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주)사너지 하우스

이렇듯 이 영화는 비정상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에로티시즘의 ‘비정상성’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전설된 것으로 믿고 있던 ‘정상성’의 개념에 도전장을 내밀며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상성이란 사실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보석 왕관을 쓰고 분홍색을 좋아하며 공주 인형을 가지고 노는 남자 아이를 보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런 남자 아이가 사회적으로 이상하다고 여겨지며 ‘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다. 하지만 남자 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공주 인형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정한 사람은 대체 누굴까. 누가 이것을 ‘이상하다’고 규정한 것일까. ‘그냥 싫다. 어색하다’는 답은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

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관점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틀에 부합한 다면 그 사람의 자의적 판단 기준은 힘을 얻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난 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사실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차별하고 비난할 수 있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는데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선을 그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내가 싫어서 싫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선이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정한 취향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취향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상하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성과 도덕을 밀접하게 결부시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으로 이상하다 생각하면 곧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이상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는 데도 말이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성'과 그렇지 못한 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깨끗하고 도덕적이다'라는 말 자체 역시도 결국은 특정 지역에서 혹은 특정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 사회에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했던 것도 여성이 한 남자에게만 종속되어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옛날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도덕률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악습이라며 질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중에는 악습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잣대는 때에 따라 상대적이며 또 가변적인 것이다. 이처럼 '정상성'은 시대와 사회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므로 절대불변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 기준은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며 우리 시대의 기준이 가장 옳다는 절대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성에 있어서의 정상성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성의 경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성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영화에서 나온 마을 주민들만큼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사람 개개인들이 가진

이상적 성애의 상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수많은 성적 취향들을 한 데 모아 '정상'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특정한 소수의 취향만을 '도덕률'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정당한 것 혹은 옳은 것으로 분류하는 행동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

●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사람들이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에 부정적 시선을 던진다. 비정상적 성적 취향은 그 자체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SM과 같은 취향은 폭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 예근 촬영

하지만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에 나타나는 폭력은 '합의된 폭력'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강제적인 폭력은 범죄가 되고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강요 없이 합의하여 행해지는 폭력은 경우가 다르다. **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폭력의 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동이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간주되는지이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폭력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지로 신체적 손상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할 폭력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혹자는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이 '범죄의 가능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비정상적 성 관련 산업이 유통 과정에서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폭력성이 가미된 스니프 필름이나 미성년자 아동의 수요가 생겨나면 그에 따라 폭력을 동반한 범죄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유린과 착취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의 가능성은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성을 대상으로 한 성 산업에서도 각종 폭력과 노동 착취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남녀 간의 성행위를 그린 포르노 관련 사업에서도 폭력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야쿠자와 같은 폭력 집단이 포르노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배우들이 폭력에 온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폭력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이를 상업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폭력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 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취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폭력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취향을 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취향이 폭력을 유발하는 수만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 자체로 폭력이 일어나게 만드는 단일 원인은 아닌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익숙한 것'과 '덜 익숙한 것'으로 기준을 나눠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판단하려 한다.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성적 취향은 인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성적 취향은 왠지 잘못되고 비정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의 정상성은 허구적이며 이 기준으로 옳은 성과 옳지 않은 성을 구분할 수는 없다. 나에게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모든 성적 취향들은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이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 에로티시즘, 다시 피어나다

●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을 무조건 거부감 있게 풀여가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다룬 <페스티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적 취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물론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상하고 낯선 주제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들은 그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다름'을 이유로 우리가 그들의 취향을 비난하며 잘못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이 좋아. 이거 하자'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비정상적 에로티시즘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지 말고 조금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폴리아모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폴리아모리(polyamory)라는 말이 있다.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자간(多者間)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폴리아모리를 하는 사람, 즉 폴리아모리스트는 사랑을 독점하지 않는 사랑을 지향하며 파트너의 동의하에 다른 사람과 연애관계를 맺는다. 때문에 흔히 파트너와의 합의 없이 타인과 관계하는 일대다, 바람, 스와링 등과는 구분되며 성별 권력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첩질'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그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여러 파트너와의 다양한 관계를 병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폴리아모리를 바라보지만 대부분의 폴리아모리스트들은 파트너에 대한 헌신과 친밀감 등의 정신적 유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픽션(fiction)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G

너와 처음 사귀게 된 그 날을 기억한다. 사귀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 우리는 십 수 번 다른 사람을 이용해 마주칠 자리를 만들었고 그 때마다 서로를 흘끗거리며 기회를 엿보곤 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지 또 십 수 번이 지났을 무렵에야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잡았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네가 너무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다. 그리고 너도 그랬다.

그렇게 힘들게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본래 너의 연애 방식이 그러했던 것일까. 너는 나를 독점하길 원했다. 너의 연인은 나 하나뿐이고 나의 연인도 너 하나뿐이며 서로 외의 타인을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자고, 사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말했다. 내가 너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자 너 역시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독점하고 독점당하는 관계,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 외의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 이 사랑의 감정을 오로지 너에게만 쏟겠노라 다짐하며 우리는 그 날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낭만적 사랑'을 약속했다. 이로써 앞으로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다.

그렇기에 나는 내가 지금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머릿속 한 칸을 내주고 마음까지 준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마치 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얼굴을 붉혔고 마구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우연히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졌고 그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선 나도 모르게 내 시선은 그 사람의 얼굴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으면서도 난 여전히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렸고 네 얼굴을 보면 행복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내 마음은 너를 향할 때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고민했다. 앞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리고 그를 향한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마음을 지우고 매 순간 너만 사랑했던 것처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너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을까. 낭만적 사랑을 맹세하며 마주본 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죄의식에 몸부림쳤고 눈물을 떨구곤 했다. 네 얼굴을 차마 볼 수조차 없어 나는 여러 핑계를 대며 너와의 만남을 계속 뒤로 미뤘다.

고민을 한다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사랑한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았다. 이대로 혼자 힘들어하다 너를 다시는 못 만나는 것은 아닐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 역시 너를 사랑하는데 왜 만나지 못할까. 나는 너와 그에 대한 내 사랑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찾아 헤맸다.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었기에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이 또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에 불과할지 몰라도 어쨌거나 나는 위안을 얻었다. '폴리아모리'라고 불리는 그것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여 너에 대한 내 감정이 변한 것은 아니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줬다.

그래서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감정을, 내 혼란을 솔직히 고백하고 너와 나의 관계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설명하면 너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을까,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갑작스레 솟아오른 긍정적인 생각에 내 기분은 거짓말처럼 들떠 올랐다. 수 일 만에 너에게 연락을 했다.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너의 기쁜 목소리에 나 역시 기뻐하며 화답했다. 그 때까지 나는 분명 누구보다도 행복해 했다.



나는 잠시간 네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가 불같이 화를 낼 때 난 그때

까지도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화를 내다 비틀거리며 여기저기 부딪히는 너를 끌어안자 너는 몸부림치며 내 품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소리치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처럼 가슴을 진정시키며 너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개랑 잤니?”

배신 당했다는 듯 매우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너의 눈빛을 받아내던 나는 잠시 침묵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는 재차 물어보았고 나는 '아니'라고 확고하게 못을 박았다. 그제서야 너는 잠시나마 안심한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런 널 보며 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네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 나는 네가 상처받을 것을 알기에 차마 내 생각을 그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자면 안 되는 건가. 스와핑을 하자는 것도, 3p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까지 너와 관계했던 것처럼 관계를 지속하고 다른 사람과도 같은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뿐인데, 지금 사귀고 있는 너 외의 다른 사람과 섹스한다는 것이 그렇게나 '더러운 일'인 걸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침묵을 견뎌내야 했던 너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은 너의 목소리는 메마른 가지처럼 갈라져 있었다.

“이젠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아닌데, 내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한다고 해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너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너를 향했던 마음을 반으로 쪼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물이 가득 차있는 동이에서 다른 동이에 물을 따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차있는 동이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일 뿐이야. 오히려 두 사람 모두와 관계를 이어가며 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텐데. 너와 나 사이에 변화가 생길지라도 그건 결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닐텐데.

말이 돼? 더 좋아질 거라고? 헛소리 하지 마.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그 입 좀 다물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해 못 해. 어떻게 그런 걸 이해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힘빠진 목소리로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느냐며 원망하는 너에게 나는 아니라고, 아직 그 사람과는 연애 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곧 말을 삼키고 주저앉았다. 내가 그 사람과 실제로 연애를 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였다. 너는 내가 너 외의 다른 사람한테 눈길을 쫓는다는 것, 마음을 쫓는다는 것 그 자체를 견디지 못 하고 있었다.

아마 이해할 수 없겠지. 너도, 나도.

더 이상 너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을 감았다. 의미 모를 너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자신이 없었다.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받을 너를 알았고 독점적 연애를 지향하는 너와 다자 연애를 지향하는 나의 사고방식은 결코 맞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마주본 너의 자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나를 뒤로 하고 떠나는 너를 알면서도 나는 너를 돌아보지 못 했다.



사실은 그런 질문을 했던 너를 이해했고 그런 반응을 보인 너도 이해했다. 나 역시 그랬기에. 나 역시 똑같이 내게 그런 질문을 던졌고 나 자신을 혐오스러워했기에. 그렇기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너를 나는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렇기에 네게 아무 것도 강요할 수 없었다. 나를 독점하기를 원하는 너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도 웃고 떠들고 행복해지는 것을 용납하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을까.

다자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내 다자 연애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에 대한 '배신'이 될 테니 나는 반드시 너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다. 그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어나가는 연애는 그랬다. 하지만 그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랑'이라면 어떨까. 과연 너의 '허락' 여부에 따라 내 의지대로 조절 가능한 것일까. 내가 좋아하라고 하면 좋아하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설령 가능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너를 사랑하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될지는 나도 모르고 너 역시 모른다. 그런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너에게 '다른 사람 안 볼게, 너만 사랑할게.'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너를 동시에 기만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런 성향은 '교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개 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너에게 선택권을 쥐어 한다. 당연하다. 애초에 '낭만적 사랑'을 약속했으면서 이를 어긴 것은 나였으니까. 그래서 네게 연락을 했다. 몇 일만에 얼굴을 마주한 너는 이전처럼 생기있지 않아서 나는 더 고개를 숙였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내가 그간 고민하며 정리했던 생각들을 모두 말했다. 너에게 나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에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의 대답을 기다렸다. 네가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전적으로 너에게 따르겠다고 덧붙이면서.

생각했던 대로 너는 나를 버릴 거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너 같은 거 이젠 싫다고 말하며 내게 손을 올렸다. 차마 내 뺨을 내리치지 못하던 너는 들어 올린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힘없이 떨어트렸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손으로 힘겹게 옷을 움켜잡고 너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너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이유로 내게 화를 내고 있었다. 내가 플리아모리스트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너 혼자 피해자인 척 하지 마!"

너만 힘들지? 너만 피해자인 것 같지? 누군가를 독점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네 방식이 그렇게나 소중했다면 나를 이해시킬 생각은 안 했니?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득해 볼 생각은 안 했니? 넌 이미 나한테 단 두 개뿐인 선택지를 적선하듯 내민지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잖아. 이진 강요가 아니냐? 어떤 걸 택해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나한테 대체 뭘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다 내 잘못이라며 너 혼자 불쌍한 척하면 재미있어? 좋니? 애초에 너는 내가 널 택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절대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단정하고 있잖아. 그렇게 나를 답답한 바보취급 하면서 너 혼자 피해자인 척 하고 있잖아. 근데 정말 너만 피해자니?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댈질 정도로 너한테 아무 것도 아닌 나는 피해자가 아니냐?

아니야.

네가 아무 것도 아닐 리가 없잖아. 그렇게 좋아했고 지금도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그런 네가 '아무나'일 리가 없잖아. 그저 그 선택지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너에게 강요하는 건 너에게 폭력이잖아.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애초에 난 네가 나를 택하지 않으리라고, 절대 너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으니까. 그게 내 오만이었구나. 너는 나를 독점할 수 없다는 것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었구나. 너를 상처 입힌 건 이미 너를 포기한 듯한 내 태도였구나.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너는 그런 나를 응시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별을 고한 것은 너였다. 사실 이별 이전에 이별을 단정했던 것은 나였지만 어쨌거나 말로 꺼낸 사람은 너였다. 차마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시선

을 돌리고 작게 울조리는 너의 모습에 지난 네 고민의 무게가 느껴져 나는 차마 먼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 때 네가 내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너는 아직도 '낭만적 사랑'을 원한다고 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독점하고 싶다고 했다. 너는 질투가 심해 너의 연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다고, 연인의 모든 시간을 독점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연인이 너 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네가 독점할 수 없기에 싫다고,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랑은 더 이상 사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동시에 너는 작게 원망을 말했다. 왜 그토록 쉽게 포기했냐고, 설령 네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그만하자'고 말할 때까지 설득해줄 수는 있었냐고. 네 앞에서 눈을 감고 설득을 포기한 듯한 나의 태도가 너에 대한 내 감정의 깊이가 고작 그 정도임을 증명하는 것 같아 슬펐다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 역시 미안하다고. 차라리 사귀기 전부터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네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다고.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해서 미안하다고. 또 네가 나를 포기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포기해버려서. 너는 절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너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서 미안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해야 할 말, 하고 싶었던 말을 덧붙였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는 거라고. 네가 독점적 사랑을 원하듯 다자간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그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 사람을 연인으로 만날지 친구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처럼 끝나버리지 않도록 잘 이야기 해 보라고. 나 역시 그럴 테니까.

너는 알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뒤돌아섰다. 그걸로 끝이었다. ●

생태주의

어느 소식 중독자의 고백

이화교지편집위원회



1.

왜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을까. 이는 지난 일 년 동안 내가 품은 고민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소식을 해오긴 했지만 지난 일 년 동안 나는 거의 소식과 단식의 경계에 서 있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대신 담배를 피웠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었다. 아예 아무 것도 먹지 않은 날도 수두룩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먹고 싶다'는 욕구가 거의 생기지 않았다. 흔히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표현한다던데 무언가를 먹고 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기쁨도 만족도 아니었다. 먹는 행위에 대한 내 감정은 거의 혐오에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잘 허기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계는 있다. 누구라도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다. 공복 18시간째부터는 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위가 쪼그라들고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 결국 위를 쥐어짜는 듯한 꼬르륵 소리와 입 냄새가 신경이 쓰여 뱃속에 무엇이든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나는 뭘 먹어야 가장 적은 양으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엇이든 허기를 채울 것을 사기는 했다. 그런데 포장을 뜯은 그 순간부터 식사를 마칠 때까지 항상 후회가 밀려왔다. 포장을 뜯은 주먹밥을 어디 보관할 수도 없고 또 차마 버릴 수도 없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손가락씩 입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뱃속에 찌꺼기가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과 이유 모를 더부룩함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또 '괜히 먹었다'며 후회를 곱씹곤 했다.

단식에 가까운 소식을 지속하던 일 년 동안 나는 '왜 먹지 않느냐', '왜 먹는 걸 싫어하냐' 등의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도 내가 왜 하필 먹는 행위를 싫어하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아무 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스스로 떠올려 봐도 '그냥 싫다.' 외의 별다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답을 찾아내보기로 했다. 잘 먹지 않던 일 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먹는 행위'와 나에 대해 고민하며 보냈다.

2.

내 식습관을 보며 나를 채식주의자로 오해한 사람도 더러 있었다. 사과 하나, 혹은 집에서 적당히 떨어진 양배추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 주로 그랬다. 밖에서 사먹는 밥은 양이 너무 많은데다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 먹고 나면 항상 속이 더부룩해서 나는 보통 야채를 싸 가지고 다녔다.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는 데다 더부룩하지도 않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내가 꽤 많은 끼니를 고기 없이 때운 것은 맞기에 남들이 나를 채식주의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 하지만 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마다 강하게 부정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곤 했다. 나는 내가 소식하는 이유를 찾으려 했고 알고 싶기도 했지만 그 답이 흔히 채식주의는 이유로 꼽는 '윤리성'과 연관되는 것은 불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난 먹는 행위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편이었다.

물론 모든 채식이 윤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고기가 몸에 좋지 않아서 혹은 단순히 채식이 좋아서 채식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경우라면 난 딱히 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며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무언가를 하겠다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대학에 와서 내가 접한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은 그 기반을 윤리적인 이유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나에게 대규모 생선 양식과 가축 도살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설명하며 이 때문에 채식을 한다고 설명하곤 했다.

여성학을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생태학을 접하며 나는 그 '윤리성'이라는 것을 많이도 접했다. 여성학 관련 수업 시간에 우연히 보게 된 채식 관련 동영상은 인간이 행하는 다른 생명체의 파괴와 육식 자체의 폭력성 등을 말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윤리적인 것을 요구했다. **비윤리적인 육식을 그만두고 윤리적인 채식을 시작해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게 이러한 말들은 솔직히 **고상한 척 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냥 흰소리만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을 죽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먹어야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지르는 모든 일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던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일단 먹고 나서' 하자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 직접 목을 따고 피를 보면서 생명을 끊는 것만이 살해는 아니다. 밭에서 무를 캐내는 것, 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 역시도 엄밀히 말해 일종의 살해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한 순간도 다른 생명체의 살해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살해라는 행위에는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력의 배제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나는 동물이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단채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것이 마치 옳다는 양 보여주는 생태주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을 먹든 간에 다른 생명을 살해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데 왜 한 쪽은 옳으며 한 쪽은 나쁘다는 것인가. **오히려 채식주의자의 이런 태도는 생명 간에 계급을 만들고 한 쪽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지지를 수밖에 없는 폭력이라면 겸허하게 인정하면 될 것을 왜 입바른 말로 포장하는지. 이것이 채식과 생태주의에 대한 내 생각이었다.

3.

내 나름대로 계속 고민했지만 나는 내가 먹는 행위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감도 잡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내 먹는 양은 더 줄어가고 있었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갔다. 내 20년 짧은 인생 동안 가장 신경이 곤두서있던 때를 고르라면 고민 없이 이 때라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한 번은 아예 안 먹어보기로 결심까지 했다. 흔히 우리가 음식이라 부르는 모든 고형물, 즉 입 안에 넣고 이로 씹히고 삼키고 소화시켜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먹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뱃속에 집어넣은 것들은 대부분이 물과 차였다.

사실 내가 먹는 행위를 싫어하는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썩 논리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의 나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보면 되지.'라며 정말 단순하게 단식을 감행했다. 정말 배가 미치도록 고를 때까지 안 먹다보면 식욕이 생기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했고 또 내 자신의 한계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어떠한 영양소 섭취도 없이 과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언제까지 버티야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지를 일종의 자학행위를 통해 실험해보려고 한 것이다.

사실 결과야 뻔했다. 초반에야 아무렇지 않았지만 삼 일을 넘길 때부터 몸에 좋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연히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는 현기증 때문에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고 밖에서는 걷다가도 종종 땀뻘서야 했다. 양치를 할 때마다 잇몸 출혈이 심했고 언젠가부터는 이명 현상까지 생겼다. 단식을 시작한지 고작 몇 일만에 내 몸은 스스로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약해졌다. 하루에 한 끼나마 먹는 것과 아예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싶었지만 공부나 아르바이트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자 결국 단식을 포기하고 보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역시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었고 동시에 이 몸 하나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내 신체능력과 정신력은 하루 세 번 뱃속에 넣어주는 음식보다도 못하다는 것. 단식이 내게 상기시킨 것은 그것뿐인 듯했다.

4.

그런데 문득 깊이 생각해보니 내가 지난 일 년 간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나는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를 너무 싫어한 끝에 '나를 통제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했다. 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었다. 배가 곪은 것도 내 의지

가 아니요 무언가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상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데 그것조차도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난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감행한 것이다.

사실 이는 오만이었다. 애초에 내가 내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내 지독한 오만을 반영하고 있었다. 작은 모래알부터 자연 그 자체까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각기 관계를 맺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흔히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배우곤 하지 않던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다. 그 중 나 그 자체인 내 몸 역시 그렇다. 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든 것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한 채 나는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자 한 대상 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나는 그 수많은 것들 중 하필 음식을 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음식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 역시도 음식을 통제할 수 있었다. 금전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음식은 내가 쉽게 얻고 다루고 또 파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음식을 통제하려 했고 동시에 음식에 통제받는 나 자신에게 분노를 느꼈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나보다 아래의 것인 음식에게 내가 통제된다는 사실이 싫었던 것이다.

자신보다 위의 것은 통제할 수 없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 통제의 대상은 통제의 주체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든지 혹은 주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음식을 통제하려 함으로써 이를 자연스레 나보다 아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식과 나, 나아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진실로 음식이 나를 '통제'한 것이었을까. 내가 음식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애초에 음식과 나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식과 나 중 누가 누구를 통제하느니 마느니 고민했던 것은 단순히 내 착각이며 오만이었던 것이다. 나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에 음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음식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내가 음식을 손에 쉽게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음식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역시 아니다. 음식과 나는 위도 아래도 아닌 채 그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대등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5.

먹는 행위가 살해 행위인 것은 맞다. 이는 변하지 않는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에 먹는 행위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항력적 행위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대신 내가 죽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어야만 한다. 하지만 먹는 것이 곧 파괴 행위인 것은 아니다. 살해와 파괴는 다르다. 배가 고플 때 눈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집어 뱃속에 집어넣고 기운을 차리는 것은 '먹는 것'이다. 하지만 잘 차려놓은 음식을 발로 짓어저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 음식이 가진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파괴 행위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먹든 간에 먹는 것을 넘어서 지나친 파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치 없는 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자신이 식육을 핑계로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육식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써 다른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새삼 생각해보니 내가 가식적이라며 비난했던 채식과 생태주의도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채식, 잡식, 육식 중 어떤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며 윤리적인지는 판별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 생명을 음식으로 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 채식과 생태주의

가 말한 '윤리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먹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양하자는 것이다.

인간이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살해 자체가 품고 있는 폭력성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행위를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살해 행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이 거창할 것 없는,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생태주의다. 그냥 그런 거 같다. ●

梨花 85

이화교지편찬위원회

『이화』에 85집을

고함

▶ 사망년이 두려운 김영화와 이화빈

매 학기마다 『이화』를 읽으면 '매운' 양파를 까는 느낌이다. 누구나 매운 양파를 까면 눈물이 찔끔나기 마련이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작업에 일종의 경외감도 든다. 선명하고 강렬한 주황빛 『이화』 85집의 표지. 처음 본 순간 '이번에도 매운 양파처럼 강렬하고 눈물나게 독자를 몰아치겠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역시나 『이화』 85집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화』 중 가장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낸 것이 아닐까 싶다. 『이화』 85집은 매운 눈물나게 공감되어서, 매운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충격에, 매운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에 이화교지편찬위원회를 살짝 걱정하게 될 정도로 솔직했다.



이번 『이화』 85집은 대학생들이 바쁜 현실을 핑계로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사회', '교육'에 관한 날카롭게 통찰한다. 이화인이기에 가능한 '여성영화', '여성', '이화여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기고'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 모든 주제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소통'이다. 누구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

다보면 소통은 개뿔, 그냥 '일방통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에 코웃음을 치게 된다. 사회적 틀이나 고정관념, 혹은 누군가 일부러 의도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 내부에 스며들면서 이러한 일방통행은 쉽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 틀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은 '부적응자'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러나 이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화』는 제대로 들직구를 던진다. 현실을 한 번 더 바늘어보고, 비주류(사실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저히 이 아둔한 머리로는 다른 용어가 떠오르지 못한 관례로……)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화」는 사회와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양상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를 실천하는 모습은, 글썽……, 필자도 소통의 부재를 자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소통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화」 85집을 통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공감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의 접점을 찾고, 더 나아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수용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 「이화」는 진정한 '소통'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얻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화」는 나름의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개개인이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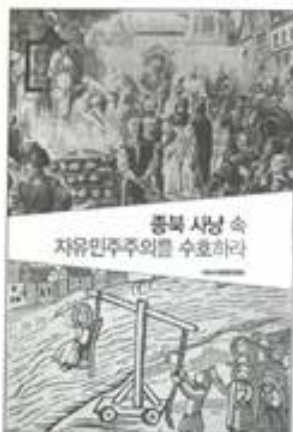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화」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새롭게 소통하고자 한다.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일부로 스며들게 되고, 이를 지적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다소 '위험한' 견해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는 여러 글을 통해서 이를 과감하게 지적하는데, 특히 〈피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에서 그런 「이화」만의 세상 비틀어보

기가 잘 드러난다. 매년 6월 6일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조기(弔旗)를 달고 뉴스에서는 현충일 추념식을 보도한다. 매년 있는 일종의 '행사'라고 생각하다보니 대다수는 무심하게 넘어가기 일쑤다. 하지만 현충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기저에 국가주의의 정당화와 애국 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희생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충일을 재정의 하여 올바른 의미를 찾고 더 이상 국가의 숨은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사회의 틀을 꼬집기는 〈천상천하 we are 독존〉도 마찬가지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소위 말하는 초대박을 터뜨렸을 때, 모든 매체에서는 너도 나도 '강남스타일의 성공 신화'를 다루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것은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화'라는 우월의식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면서 우리는 그저 우월감에 도취되어 성공에 이르기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가치를 상실하고 집단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어두운 이면을 잊고 있었다. 〈천상 천하 we are 독존〉은 이러한 집단우월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였고 이를 보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무턱대고 '잘난 맛'에 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쳐 버린 것에 쪽팔림을 느꼈달까.

〈종북 사냥 속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지난 18대 대선의 난투극을 떠



올리게 했다. 종북의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하면서 단순히 '종북'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를 매도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로 자리매김한 것에 씁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전라디언'이니 '홍어'니 '과매기'니 하는 말을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서로의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고,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을 이용해서 사회적 이슈를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종북 논쟁' 역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글이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우리 삶의 전반은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대한민국은 교육에 관한 세심한 변화 하나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런 환경에서 핵폭탄 급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인권, 그 씁쓸함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가 기존의 구조적 틀을 유지하려는 의식과 무던 인권 감수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인 학생들의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의식 역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근거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좋았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과 이를 위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책임의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잘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찰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학벌주의 밖에서 교육을 외치다>는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마이스터고와 대학 입시를 거부하는 투명 가방끈을 보여준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수용하지 않고 각각의 움직임이 내포한 문제점을 잘 짚어준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벌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이나 개념의 제시가 부족한 것 같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어서오시요 낯선 이여, 내가 이 학교의 어진 교장이요>에서 제시된 가상의 시간표를 보면서 실제로 고등학생 때 경험한 시간표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했으며 <진짜 수업권을 찾아서>는 학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부·복수전공에 대한 뚜렷한 의견 제시가 와 닿았다.

어쩌면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여성영화'와 '여성' 탐에서는 여성이기에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 성(性)에 대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다루었다. <두 개의 문>은 2009년에 벌어진 용산 참사를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읽어낸 영화다. 용산 참사에서 드러난 폭력의 실제 주체로 국가 권력을 지목하고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억압 받는 비주류의 목소리를 영화를 빌어 대신 전달해주고 있다. <나 나 나:여배우 민낯 프로젝트>는 연예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



같은 사람이자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영화다. '평범'하지 않고 싶어서 연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 방을 날리고 사람 자체의 본질,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각을 조명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댄싱퀸>에서는 여성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으로 답습되어 온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갈등을 보여준다. 영화 자체에서는 다소 싱겁게 마무리되지만, 「이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노력까지 조명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된 세 편의 여성영화는 사회적 틀에 의한 일종의 '협박'과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소통 단계로 여성주의 시각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정형화된 주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핀다. 또한 사회 내부에서 외면 받았던 이들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저 포도는 아직 익지 않아서 시단 말이야》는 페미니즘에 대해 배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았을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억압에서 해방된 여성'과 현실의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한 것을 솔직하게 풀어놓았는데, 필자는 모든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었다.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접해볼 기회가 부족해서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같은 '여성'으로서 한 번쯤 고민해 본 부분을 용기 있게 적어준 것에 감동받았다고 전하고 싶다. <섹스 보단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에서는 다소 생소한 에이섹슈얼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동시에 나이와 성(性)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반적 통념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스무 살 성인이 된 이후로 왜 사랑이나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는지 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글을 통해 성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되

짚어볼 수 있었을까. <그녀들의 수다, 성교육>은 너무 솔직한 대화들에 순간적으로 움찔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답답해했던 부분을 적나라하게 밝혀준 것 같아 개운한 느낌이 더 컸다.



다른 어떤 팀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소통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바로 '학내'이다. 「이화」의 편지」는 「이화」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화」가 어떤 가치를관을 바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밝혔다.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2-1 이화의 학내 다이어리>는 한 학기 동안 화제가 된 이화여대 내의 이슈들을 간략하게 '정문일침'한다. <총학생회 중간평가>에서는 제목 그대로 총학생회가 한 학기 동안 겪었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구역의 헤드위그는 나야」는 학내 인턴의 '안습'을 한 줄로 표현하여 헤드위그를 정다운 친구의 이미지에서 안타까움의 상징으로 탈바꿈시킨다. <소통은 힘들어>에서는 ACTing이화(총학생회)와 학생 사이의 소통의 부재로 2012-1학기에 있었던 천막 농성을 언급하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학생회와 학생의 행동을 촉구한다. 약간 아쉬운 점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제시가 부족한 것인데, 이러한 소통의 방법은 이화여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운동과 고민>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머리로만 바뀌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태도가 민망해졌기 때문이다. 보통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흠칫 하게 된다. 웬지 위험하고 불편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하는 행위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득권

의 사회적 세뇌로 인해 형성된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운동이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혹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묻어가기' 위해 이런 사회적 인식에 동조할지 모른다. 〈Social Action Project〉는 이처럼 변화에 대한 역동적인 움직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기존 사회의 흐름에 편승해서 무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비겁함을 다시 한 번 꼬집고 있다.



〈역할기대〉와 〈자화상〉은 '사회' 범의 한 부분으로 묶여있지만 오히려 사회 속의 '개인'의 모습에 더 초점을 둔 것 같아 텅을 새롭게 잡아보았어도 괜찮았을 듯하다. 사회 안에서 개개인이 소통해나가고 또 사회 자체가 개인이 소통해나갈 하나의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관찰의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이 두 글과 더불어 '기교' 팀에 실린 "거짓말, 사과, 이화"라는 키워드를 담은 여섯 편의 글은 따

뜻하면서도 서늘하다는 모순적 감정을 느끼게 했다. 누구나 한 번쯤 짚어보거나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솔직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나 뿐 아니라 『이화』를 읽은 이화인 모두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비밀을 훤히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살짝 아렸다. 달콤하면서도 씹싸콤한 고백과 같았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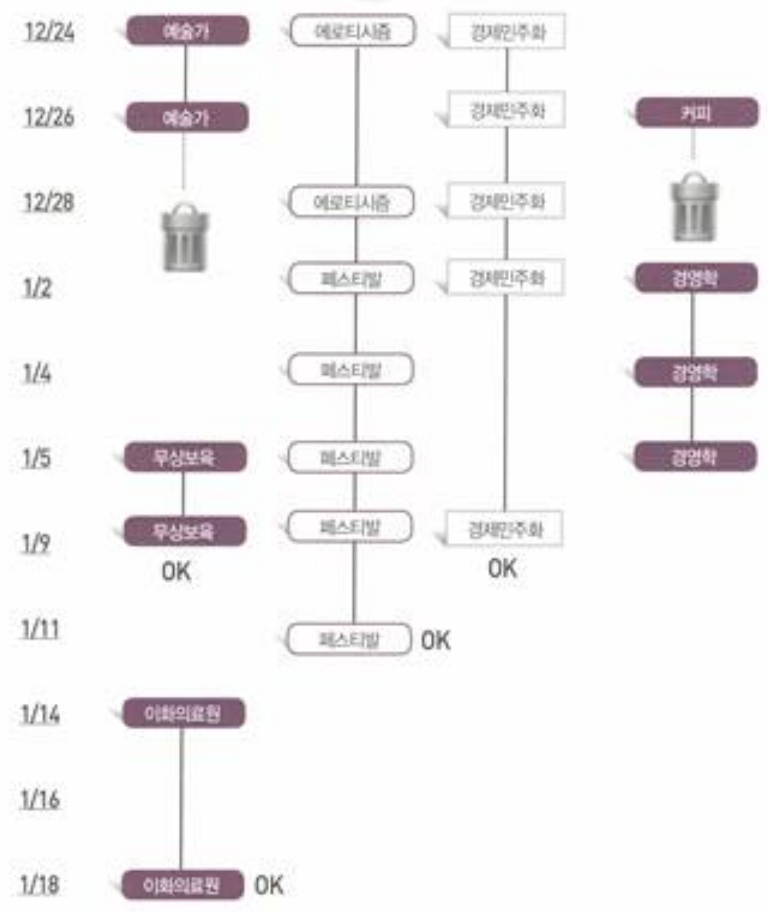
다 쓰고 나니 한숨만 남는다. 영망전창 이수라장인 글로 『이화』 85집에 괜히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지편집위원회의 마음이 녹아난

글들을 감히 평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부족한 표현력에 가슴이 아파. 어쩌면 남은 방학 기간 내내 혼자 땀 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화』 85집을 다시 읽어보고 나를 열심히 고민했다는 점 하나에 의의를 두려 한다. 글 하나하나가 사정없이 나를 쥐고 흔들었던 『이화』 85집에 비견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일 『이화』 86집을 기대하면서 비무한 〈고함〉을 여기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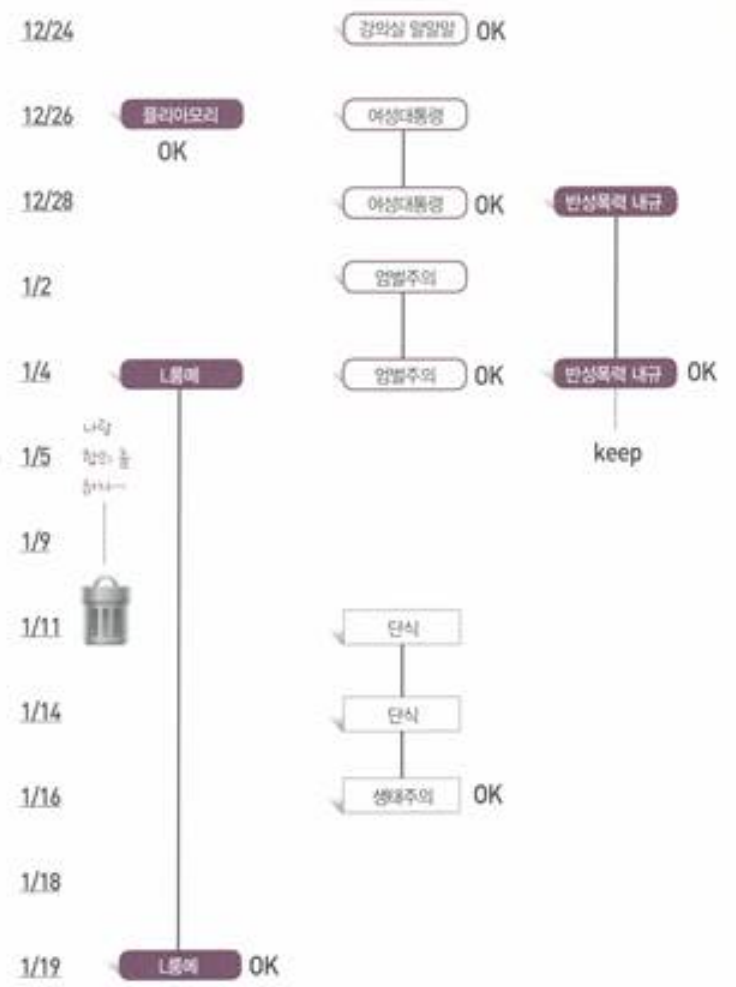
※기획안 이후 단계는 편집위원의 인권을 위해 심의 삭제 합니다.



J1



J2





편집 후기

2013 Spring 86th

연린

끝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떠날 때가 되었고 그 증거로 『이화』 86집이 나왔습니다.

교직 2년 머물렀을 뿐인데 미련이 남습니다. 아직 제 대학생활은 끝나지 않았는데 교지를 떠난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황에 부쳐 이번에 쓰지 못한 글을 영영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지를 작업해나갈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이 닿지 않을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작업 때 누구보다도 많은 글을 썼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작업했으며 소중한 인연들을 새로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그렇기에 제가 교지에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정말 급하게 청탁했는데 4일만에 만화를 뽑아낸 반쯤은 이화인님. 나는 교지 안에 동기가 없었고 때문에 교지 사람들에게 치마 털아놓지 못한 실용이 너무도 많았는데 내가 있어서 숨을 돌렸고 네 덕분에 버텼어. 이화인이 아닌데도 이화들. 그리고 『이화』를 사랑해주는 네게 고맙고 나 역시도 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내게 좋은 친구였던 것처럼 앞으로 나 역시 좋은 친구일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다음 학기 정말로 즐겁게 놀자.

그 외에도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교지 선배들, 교지 후배들, 교지를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문관 인연들. 모두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2년을 함께 해주신 디자인 오름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젠 정말 끝내야겠습니다. 2년 동안 정말로 사랑했던 교지야. 정말로 안녕.

아라가야

설 시간 없이 숨기쁘게 달려온 한 학기였지만 그만큼 나중에 추억이 되고 보람이 되리라 생각한다. 짙은 글은 더 많았지만 작업은 수습 때보다 한층 더 즐거웠다. 아마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나보다. 끝까지 마무리 잘 되길.

NANA

최종 교장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봄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스물 둘의 봄이 시작될 것 같네요.

언젠가 한 번 꽃 피거든 이 꽃만큼만 피어라.

새벽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책은 나옵니다.

흠... 무거운 철 끝까지 같이 끌고 가주셔서 고맙요, 편집위원분들.